同窓會 指標
•參與
•協力
•榮光

·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秀
印刷人 韓 鍾 愚

發 行 所
서울大學校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5, 717-8536～7

● 銀行지로番号 : 7500875
●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參與 結束 다짐한 '89年 定期總會

1천여 同門참석, 盛況이뤄 : 지난달 25일 호텔新羅 다이너스티룸에서 열린 정기총회엔 1천여 동문이 참석, 親睦과 결속을 다졌다(사진). 이날 總會에선 88년도 決算書가 승인되었으며, 곧이어 宴會에 들어가 많은 景品이 참가 동문들께 나누어졌다.

冠岳春秋

同窓會의 活性化를 위하여

지난 3월25일 오후2시 서울대학교 동창회 定期總會가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룸에서 열렸다. 날씨는 더없이 화창한데 봄기운을 머금고 한창 푸른기를 띠어가는 버들이며 시원스레 축성된 庭園의 돌틈에서 얼굴을 내민 꽃나무들도 꽃망울을 보풀려 가고 있었다.

開會 한시간 전부터 벌써 同窓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흰머리가 年輪을 알리는 듬직한 老同窓으로부터 한창 패기 만만한 30·40代의 同窓, 큰 잔치에라도 가는듯 화사하게 차려 입은 女子 同窓들이 느긋이 늘어서서 芳名錄에 서명하고 이름표를 받아 꽂는다. 知面을 대해서는 반가운 인사를 교환하고, 生面이라도 같은 同窓으로서의 따뜻한 同志愛를 느낀다.

이윽고 거의 1천여명이나 되는 동창이 그 넓은 홀을 그득 메우고, 定時가 되자 吳寅泳 사무처장 司會로 총회가 시작됐다. 週末인데도 이렇게 많이 오시어 盛況을 이루어 주신데 대하여 感謝하다는 인사말에 이어 崔主鎬 會長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우리 서울대 同窓會가 앞으로 펼칠 기념사업에 대해 묵직한 음성으로 차근차근 이야기를 펼쳤다. 첫째가 16만명을 수용하는 초대형의 名簿를 발간하는일이요, 두번째가 후배 재학생들을 위한 10억의 獎學基金 조성을전개하는 일이라고 했다. 첫번째는 제작비 全額을 광고료로 충당예정이므로 정확한 名單收合에 각 大學·大學院別 동창회의 협조가 요청될 뿐이나, 둘째것은 동창회 名簿 판매대의 충당으로 다소의 도움이 될것이나 同窓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政府要職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유수 企業體의 長도 많은 우리동창회가 모교에의 謝恩의 일환으로 이일은기필코 達成해야할 것이라고 못박아 강조했다.

會長 인사에 이어 趙完圭總長은 서울대 敎授硏究費가 1백80억으로 外國大學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나 교수의 硏究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있다 하고, 근자 동문과 企業의 호의로 진행중에 있는 각종 건축에 대해 언급했다. 그 첫째가 故李秉喆 三星그룹會長의 遺志로 30억을 들여 大學院 碩·博士課程 이수생들과 외국에서 돌아오는 교수들의 계속 硏究할 시설로서 湖巖生活館을 짓고 있으며, 다음으로韓電 安秉華同門의 주선으로 각대학이공동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電子工學共同研究所를, 그리고 鮮京그룹의 崔鍾賢同門의 주선으로 經營大學이 사용할 鮮京經營館을 건축중에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다 모교가 民族의 대학, 世界의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고무적인 사실이라 하겠다.

총회에 이어 音大를 졸업하고 KBS에서 音樂 P·D로도 활약한바 있는 金明僖 여자동문의 朗朗하고 활기찬 목소리의 사회로 노래와 娛樂프로가 진행되어 예년과 같은 풍성한 선물과 함께 당일 참석 同門들의 마음을 매우 흐뭇하게 해 주었다.

이로써 창립 20주년을 맞은 우리동창회의 활성화의 서막이 화려하고 찬란하게 열린 것이다.

동창회원 사이의 血脈 구실을 하는 同窓會報만 하더라도 1976년4월創刊 당시에는 불과 4천부를 발행했던 것이 현재는 6만부로무려 15배의 성장을 보았고, 面數도 16면에서 20면으로 불어 質로 보나 量으로 보나 단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내 유수한 동창회보로 발전하였다.

同窓會의 豫算面에서도 20년전 초창기에는 불과 기백만원 이었던 것이 금년도는 무려 6억2천만원으로 성장하였다.

금년에 준비하여 90년 2월에 발간 예정인 동창회 名簿는 11년전인 1978년 2월에 8만7천명을 등재한 4·6배판 약 1천5백50면의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커져 15만6천명을 등재, 5·7版 2천2백면의 大型版이될 것이다.

이 명부와 會報의 보급 확대로동창회의 조직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따라서 동창회의 指標인「參與 協力 榮光」의 정신이 구현될 것이다.

동창회란 직접 만남으로써 정감이 交感되고 親睦이 도모되는법이니, 그런면에서 同窓會館은 우리의 만남의 광장이요, 親交의 터전인 것이다.

금년도 동창회 예산에서 親睦事業費로 작년의 배가 넘는 4천4백만원을책정해 놓은것도 同窓會의 본질을 잘살린 措處라 여겨진다.

동창회의 活性化는 본부 중심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고, 반드시 支部 활성화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支部支援費를 작년의 거의 배가 되는 7백만원을 확보했으며, 각종 會議費도 마찬가지로 2천만원을 책정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國家의 棟樑을 그득 안고 있는우리同窓會의 발전과 活性化는 그대로 國家발전의 礎石 구실을 한다는것을 想到할때 우리들의 任務는 실로 크다 하겠다.

올해 事業計劃 확정

名簿発刊·10億基金 조성에 力點

親睦事業 支部支援費도 대폭 증액

동창회 1989년도의 예산은 총6억2천2백39만4천5백80원으로 짜여졌다.

이는 지난 15일 열린 제103차 常任理事會에서 최종 확정된 것인데 올해의 주요 사업으로는 △會報發行 △會員名簿 △組織强化 △親睦事業 △母校및 支部지원 △제반 會議 운영 △재단법인 冠岳會 기금조성 지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의 3억1천7백70만원(실적 4억8백55만6천9백93원)보다 약 2배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증가된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會員名簿발간비로 1억6천만원이 새로 책정되었고, 기타 친목사업비에서 1천4백60만원, 지부지원비에서 3백만원, 회의비에서 8백80만원, 조직강화비에서 2백60만원씩이 각각 증액되었고, 管理費 부문에서는 인건비가 약 2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동창회 업무 전산화에 따른 電算 요원과, 동창회관 5층의 예식사업, 그리고 명부발간등으로 부득이 직원수가 증원된데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 내역은 별표와 같다.

1989년도 同窓會 予算書

收入之部 (단위 : 원)

款	項	目	88년도豫算	89년도豫算
經常收入	特別會費	會長團	10,100,000	11,100,000
		理事	92,000,000	90,000,000
	分擔金	常任理事	3,100,000	3,100,000
	會費	入會費	5,500,000	5,500,000
		一般會費	115,000,000	120,000,000
經常外收入	廣告料		90,000,000	100,000,000
	收入利子		2,000,000	5,000,000
	贊助金			81,000,000
其他收入	假支給金			26,000
	附加稅還給金			1,436,976
合計			317,700,000	622,394,580

支出之部 (단위 : 원)

款	項	目	88년도豫算	89년도豫算
事業費	刊行物費	會報發行	98,000,000	115,714,886
	親睦事業	親睦事業	15,000,000	29,600,000
		慶吊金	5,000,000	15,000,000
	母校支援事業	學生支援	3,000,000	3,000,000
		母校支援	3,000,000	3,000,000
	支部支援事業	協議會	1,000,000	4,000,000
		支部支援費	3,000,000	3,000,000
	組織强化	組織强化	67,000,000	69,600,000
	會議	總會	9,000,000	9,000,000
		常任理事會	1,500,000	1,500,000
		委員會	1,200,000	
		其他會議		10,000,000
	電算化基金		20,000,000	10,000,000
	20年史發刊費		5,000,000	
	名簿發刊費			160,000,000
	基金造成費		1,000,000	1,000,000
	冠岳會基金轉出		30,000,000	5,500,000
管理費	人件費	給與	29,013,200	51,356,640
	旅費	交通費	2,500,000	2,500,000
		出張費	900,000	900,000
	事務費	通信費	2,500,000	3,900,000
		事務用品費	600,000	800,000
		備品費	4,000,000	2,000,000
		印刷物費	5,500,000	5,500,000
		圖書費	900,000	900,000
		油類補助費	3,600,000	
	醫療保險料		800,000	800,000
	雜費		1,000,000	1,000,000
	退職積立金		3,500,000	9,644,141
	次期移越		196,800	103,178,913
合計			317,700,000	622,394,580

副會長 4명 새로 選任

103차 常任理事會

李奭熙(法大·大宇그룹副會長) 趙南煜(法大·國會議員) 李洙彬(商大·東邦生命保險社長) 鄭夢準(商大·國會議員)

◇趙南煜부회장

◇李奭熙부회장

◇鄭夢準부회장

◇李洙彬부회장

본회는 지난 15일 제103차 常任理事會를 열고 동창회 88년도의 決算과 89년도의 事業計劃및 예산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 이를 총회에 회부키로 했다.

이어 지난 정총에서 崔主鎬회장에게 위임한바 있는 副會長 4인의 보선에 대해서는 崔회장이 추천한 李奭熙(55년 法大卒·大宇그룹副會長)·趙南煜(57년 法大卒·三扶土建社長·國會議員)·李洙彬(61년 商大卒·東邦生命保險社長)·鄭夢準(75년卒·現代重工業會長·國會議員) 동문을 전원 이의없이 그대로 인준했다.

이로써 본회의 회장단은 會長 1명, 副會長 20명, 監事 2명으로 늘어났다.

새로 선출된 부회장 4명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李奭熙부회장 △32년 서울生 △55년 法大卒 △漢陽商事 이사 △大宇實業 사장 △大宇開發대표이사 △大宇自動車 회장 △大韓通信 사장 △大宇그룹 부회장 △大韓商工會議所 부회장.

◇趙南煜부회장 △33년 扶餘生 △57년 法大卒 △國際經營院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中央選擧管理委員會 총무국장 △三扶土建 감사·전무·부사장·사장 △大韓建設協會 회장 △韓·日親善協會中央會 부회장 △國會議員

◇李洙彬부회장 △39년 星州生 △61년 商大卒 △美國하버드大學 경영자과정 수료 △三星그룹이사 △第一毛織 상무·전무·사장 △第一合纖 사장 △三星精密 사장 △第一製糖 사장 △東邦生命保險 사장.

◇鄭夢準부회장 △51년 서울生 △75년 商大卒 △美國 콜럼비아大學 경영대학원 수료 △美國 MIT大學 경영대학원수료 △現代重工業 사장 △現代重工業 회장 △大韓洋弓協會長 △國會議員.

醫大

姜信浩회장 재선출

其他임원은 銓衡委員會에 위임

醫大동창회(회장 姜信浩)는 지난 3월3일 금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임기만료된 姜信浩회장을 유임시키는 한편 6천3백70만5천원의 새해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총회는 또 부회장단및 집행위원은 의대학장 및 병원장을 포함한 전형위원회를 구성, 별도로 선출토록 위임했다.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정총에는 權彝赫전보사부장관(1회)등 원로동창이 다수 참석했으며 金勇一전상임진과 마포·서초·천안·경상의대·한강성심병원등 지회, 그리고 11회·17회·30회에 대해 표창을 했다.

前年度 決算승인

冠岳會 38차 이사회

재단법인 관악회는 지난 15일 오전 8시 리베라호텔에서 제38차 理事會를 열고 임기만료된 朴鍾混이사와 李燦河감사를 재선임, 주무관청에 취임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이어 1988년도의 決算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날 승인된 결산서에 따르면 冠岳會의 88년도 매출收入은 임대료 7천5백45만2천4백60원, 관리비 3천5백39만4천9백92원으로 총 1억1천84만7천4백52원이다.

반면 지출면에서는 인건비 4천1백28만원,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3백35만원, 복리후생비 4백20만원, 도서통신비 2백23만원, 수도광열비 1천2백34만원, 사무비 1백79만원, 소모품비 2백만원, 세금과 공과 1천78만원, 청소비 2백26만원, 보험료 2백만원, 수선비 5백31만원, 감가상각비 1억9백33만원, 목적사업비 1천8백만원, 지급수수료 6백62만원 등으로 총 2억2천2백62만6천2백6원으로 1억1천1백77만8천7백54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영업외 수익에서 찬조금 17억3천1백65만원, 수입이자 2천2백75만원, 잡수입 47만원 등 총 17억5천4백88만5백81원이 발생, 당기순이익은 16억4천3백8만6천3백20원으로 집계되었다.

관악棋友會 정총

東京大生과 친선대국도

관악기우회(회장 金榮國)는 지난 3월19일 2시 한국기원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날은 제13회 서울대·東京大交流戰 OB 친선대국을 겸한 자리여서 더욱 활기를 띠었으며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친선대국에서 OB팀은 3승3패의 전적으로 무승부를 기록하였다.

이어 벌어진 총회에서는 특별한 안건없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회원들은 담소를 나누며 칵테일파티를 즐겼다.

이날 총회에는 韓昇洙 상공부장관이 來訪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創立20주년 기념식

― 齒大 救癩奉仕會

齒大구라봉사회(회장 劉東洙)는 지난달 25일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정기총회와 봉사회 창립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는 올해의 사업계획과 1천5백10만원의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 확정하고 임원개선에 들어가 현집행부를 유임시키는 한편 새로 늘어난 두명의 이사에 金振浩·鄭允碩 동문을 선출했다.

이어 기념식을 열고 초청인사와 토론등의 시간을 가진 뒤 봉사회 창립20주년을 기념했다.

구라봉사회는 모교 치대출신 동문들이 나환자촌의 치과진료를 목적으로 창립한 사단법인체로서 그동안 월말, 하계, 동계 진료를 통해 수많은 나환자의 구강건강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88年度 決算승인 優秀支部 표창

1천여동문 참석 성황속에 定總열려

創立20돌…成年맞아 祝祭분위기

◇총회후에 있은 宴會광경

◇崔主鎬회장이 黃斗英행정대학원 동창회 사무국장에게 표창패를 증정하고 있다

본회는 지난 3월25일 호텔신라 2층 다이너스티룸에서 198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4억8백55만원 규모에 달하는 88년도의 事業및決算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날 오후2시 동문약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吳寅泳사무처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정총은 國民儀禮, 會長人事, 모교總長축사, 表彰, 新入會員환영사, 신입회원 대표답사, 부의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崔主鎬회장은 이자리에서 『본회는 금년으로 창립 20周年을 맞는 뜻깊은 해』라고 전제한후 『동창회의 금년도 중점사업은 會員名簿 발간과 10억 基金조성』이라고 밝혔다.

崔회장은 회원명부는 내년 총회전 발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0억基金 조성목적은 후배들에게 보다 많은 奬學金의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하면서 동문들의 뜨거운 협조가 있기를 부탁했다.

崔회장은 이어 『오늘 총회는 88년도의 決算承認의 건이 주요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면서 잘 검토하신후 좋은 의견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趙完圭총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대학들이 겪고있는 진통등 모교의 현황을 간단히 설명한뒤 『장기발전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앞으로 2~3년이 지나면 서울대학은 硏究中心의대학으로 자리잡혀 갈것을 동문들이 확신한다』고 하면서 동문들이 현재 계시는 위치에서 하루빨리 모교가 세계적 대학이 되도록 지원해 주기를 부탁했다.

이어 동창회 발전에 공이 큰 개인 및 支部에 대한 표창이 있었는데 表彰牌를 받은 개인 및 지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개인=▲黃斗英(행정대학원 동창회사무국장) ▲趙南建(국토개발연구원 지부 간사)

◇지부=▲中外製藥 ▲東洋製藥 ▲韓國道路公社

表彰이 있은후 權彝赫前모교총장은 신입회원환영사에서 신입회원들에게 『健康한 서울大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동문들부터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건강한 사람』과 『여유있는 사람』이 되어주길 당부했다.

이에대해 신입회원 대표 李滿基(인문대卒·동창회장상 수상)군은 『선배님들과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영광스럽기 그지없다』고 인사한후 『선배님들의 뜻을 받들어 서울대인으로서의 진실된 이미지에 손상이 되지않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 이 社會와 祖國에 이바지할것』을 굳게 다짐했다.

附議및 報告에서는 먼저 1988년도 동창회 사업및 결산보고가 있었다. 吳寅泳사무처장으로부터 88년도에 실시한 동창회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嚴宗鎭감사로부터 감사보고를 듣고 참석동문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했다.(별표 결산서 참조)

이어 李聖秀상임부회장으로부터 동창회의 올해 중점사업인 회원명부 발간과 10억기금 조성에 대해 자세한 보고를 받고 참석한 동문들은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으로는 지난 총회에서 위임받은바 있는 부회장 4人의 선임결과에 대해 崔회장이 발표를 하였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李爽熙(55년 法大卒·大宇그룹부회장) ▲趙南煜(57년 法大卒·三扶土建사장·國會議員) ▲李柱彬(61년 商大卒·東邦生命保險社長) ▲鄭夢準(75년 商大卒·現代重工業會長·國會議員)

이것으로 이날 총회의 보고및 안건처리는 모두 마치고 이어 칵테일 파티및 여흥이 시작됐다.

여흥은 金明縣동문(音大卒·本會理事)의 재치있는 사회로 시종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특히 예년에 볼수없었던 금혜승동문(88년音大卒)의 피아노 반주와 성악을 전공한 오은경동문(88년 音大卒·대학원재)이 「라 트라비아타」중 「동심초」를 열창하여 동문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이날 여흥 중간중간에는 특별기념품을 추첨으로 증정하여 그 즐거움이 더욱 배가되었는데, 특별기념품은 崔主鎬회장이 기증한 칼라TV를 비롯하여 오토바이·VTR·냉장고등 각계의 동문들로부터 찬조된 30여품목 약 2백50여점에 달했다.(별표 협찬품 참조)

이날의 총회는 88년도 決算報告외 특별한 안건이 없었던 관계도 있었지만 예년에 없이 아주 즐겁게 어우러져 여흥이 끝날 무렵에는 다같이 손에 손을 잡고 「푸른하늘 은하수」를 합창하는등 成年을 맞은 동창회의 뜨거운 결속력을 과시했다.

協贊品 내주신 분

〈접수순〉

崔主鎬	宇成그룹 會長	칼라T.V 1대
		킹텍스 복지 5벌
金埈成	大宇그룹 會長	대우VTR 1대
河永基	第一生命保險 社長	진주햄20세트
金相廈	三養社 會長	삼양설탕30켄
具平會	럭키金星商事 會長	금성냉장고3대
姜信浩	東亞製藥 會長	'위하여' 와인10세트
		라미화장품 5세트
張翼龍	(株)西光 會長	라꼬스떼T.셔츠 5점
		쥬리아샴푸, 린스 5세트
		쥬리아남성화장품10세트
朴容晟	東洋麦酒 會長	OB 씨그램진240병
		디프로메트12병
		토닉워터480병
玄在賢	東洋시멘트 社長	반니카라멜 1,000봉
李孝益	三益楽器製造 社長	三益기타 5대
		三益멜로디혼10대
金善弘	起亞産業 社長	삼천리자전거 2대
李埈銘	大林産業 副會長	대림혼다오토바이 1대
李基和	泰光産業 社長	밍크담요 3장
黃英奎	太平洋化學 社長	아모레화장품10세트
徐敏錫	東一紡織 社長	아놀드파마T 셔츠 3점
金孝圭	第一製糖 專務	白雪햄10세트
李大遠	第一毛織 社長	갤럭시紳士服 3벌
宋三錫	(株)모나미 社長	모나미수성볼펜 1천개
姜晋佑	롯데햄.우유(株) 社長	롯데햄 5세트
金炫植	(株)東亞出版社 社長	동아영한사전10권
申熙澈	金剛製靴 社長	금강신사화 5족
金基炳	롯데觀光 社長	설악산관광티켓 2人用 5조
崔鍾賢	鮮京그룹 會長	SKC 비디오테이프30개
玄明官	호텔新羅 副社長	호텔신라부페권 3조
許南珏	(株)韓國나이키 會長	나이키잠바및가방10점
姜晋求	三星電子(株) 副會長	三星VTR 1대
李憲祖	(株)金星社 社長	금성소형흑백TV 3대-
金京熙	(株)知識産業社 社長	大河小說"土地" 5질

1988년도 同窓會 決算書

收入之部 (단위 : 원)

款	項	目	88년도豫算	實績
經常收入	特別會費	會長團	10,100,000	9,100,000
		理事	92,000,000	90,030,000
	分擔金	常任理事	3,100,000	2,900,000
		支部長	-	-
	會費	入會金	5,500,000	5,182,000
		一般會費	115,000,000	129,914,511
經常外收入	廣告料		90,000,000	87,970,000
	受入利子		2,000,000	4,724,199
	贊助金		-	78,719,713
	雜收入		-	16,570
合計			317,700,000	408,556,993

支出之部 (단위 : 원)

款	項	目	89년도豫算	實績
事業費	刊行物費	會報發行	98,000,000	95,205,990
	親睦事業	親睦事業	15,000,000	18,983,331
		慶吊金	5,000,000	5,990,000
	母校支援事業	學生支援	3,000,000	729,100
		母校支援	3,000,000	2,500,000
	支部支援事業	協議會	1,000,000	-
		支部支援費	3,000,000	370,000
	組織强化	組織强化	67,000,000	67,621,903
	會議	總會	9,000,000	4,806,882
		常任理事會	1,500,000	504,027
		委員會	1,200,000	630,289
	電算化基金		20,000,000	12,798,000
	20年史發刊費		5,000,000	-
	基金造成		1,000,000	-
	冠岳會基金轉出		30,000,000	16,944,000
管理費	人件費	給與	28,903,200	25,509,410
	旅費	交通費	2,500,000	2,197,550
		出張費	900,000	350,700
		通信費	2,500,000	3,098,720
	事務費	事務用品費	600,000	719,660
		備品費	4,000,000	6,151,000
		印刷物費	5,500,000	5,178,220
		圖書費	900,000	248,000
		油類補助費	3,600,000	1,800,000
	保險料		800,000	588,880
	雜費		1,000,000	600,481
	退職給與充當金轉入額		-	9,644,141
	退職積立金		3,500,000	1,957,718
	次期移越		196,800	123,428,991
合計			317,700,000	408,556,993

서울大學校의 뿌리 ⑩

—韓 基 彦
〈49년 師大卒·母校師大교수〉

人文大學〈上〉

人文科學분야의 15個學科로 構成

大學중의 대학으로 學問的 矜持 높아

—文理科大學이 根幹, 學界의 巨星들 出講

發足 당시부터 自我확립의 화덕 구실

인문대학의 뿌리는 文理科大學에 있다. 문리과대학은 스스로「대학의 대학」임을 내세울 정도로 학문적인 긍지와 실적도 자못 크다. 수많은 학술원 회원과 각종 학술상 수상자가 여기서 나온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인문대학은 국어국문학과를 비롯하여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서어서문학과, 언어학과,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미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인문대학의 성격으로 말하면「본래 人文科學이란 인간자신 또는 自我와 個性의 확보, 추구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인간 자신이나 자아 개성 등의 개념은 그것을 公的 狀態로 대치시키면 곧 民族意識 내지 主體性이 된다. 그리하여 불리한 여건 속에서 문을 열고 그 발족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의 人文科學은 발족 당시부터 自我確立의 뜨거운 화덕 구실을 했다」(金容稷, 人文科學 硏究 40年의 回顧와 展望)고 학자적 입장에서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학계의 연구활동에서 主流를 차지한 것은 서울대학교수에 의한 人文科學分野이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어문학과 한국사 및 文化전반에 걸친 연구였는데, 주요업적으로 꼽히는 것으로는, 趙潤濟,『韓國詩歌의 研究』, 李丙燾,『高麗時代의 研究』, 李崇寧,『韓國音韻論 研究』, 孫晋泰,『韓國民族說話의 研究』,『韓國民族史概論』, 高晶玉,『韓國民謠의 研究』, 金庠基,『東方文化交流史論攷』, 李相伯,『韓國文化研究論攷』등이다.

초기 교수로서 우선 생각나는 분으로는 陶南 趙潤濟 박사를 들어야 되겠다. 陶南은 일제 시대에 관립 경성사범학교에 재직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일본통치하에 있어서의 陶南의 입장은 순탄치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역경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민족정신의 보존 계승 및 현창을 생각하여 국문학사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는 1954년에『國文學史』(東光書店)를 上梓하였거니와 거기에는 그가 해방을 맞아 대학강단에 섰던 때의 복받치는 감격의 순간과 심정이 절절한 필치로써 엮어져 있다. 즉,

一石 李熙昇박사

陶南 趙潤濟박사

아아 八月十五日 드디어 우리의 解放의 날은 왔다. 三千里江山 坊坊曲曲이 우렁차게 부르짖는 萬歲의 소리는 地球의 地軸을 흔들었다. 政治家는 海內外에서 모다 한데모이어 國事를 論하고, 文筆家는 붓을 모아 建國의 理念을 말하였다. 이때 나는 大學講堂에 뛰어올라 同胞의 젊은 學徒를 앞에 놓고 소리높이 國文學史를 講義하였다. 實로 感慨無量한 일이다. 나는 國文學史 講義의 첫 時間을 마치고 내 研究室에 들어가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내 옷깃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뒤에 알았다. 暴虐한 三十六年의 倭政은 우리의 國語를 抹殺하려 하였고 우리의 文化를 짓밟아 망그러뜨려 없애려 하였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壓迫 밑에서 呻吟하던 우리가, 또 내가 어찌 오늘날 우리의 國語로 우리의 國文學史를 우리의 大學講堂에서 講義할 줄 알았으리요.

라고 하였고, 「그러나의 二十餘年의 學究의 生活은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民族獨立運動이었다」고 하였다.

초기 제자로서 스승 陶南에 대해서 張德順 교수는『해방이 되어 나는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하여 비로소 도남 선생을 뵙게 되었고 또 그 강의도 듣게 되었다』고 陶南과의 學緣에 관해서 설명하고 나서,

『첫 인상이 〈大人風〉이라는 것이다. 체구가 우람하고, 목소리가 우렁찼다. 美貌의 얼굴은 아니나 사나이답게 울퉁불퉁하며 무섭게 보였다』

고 첫인상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기에 陶南은 四君子 중에서 대(竹)로 높이 평가되었던 志士型 愛國者인 교수였다. 이 점 月灘이 陶南의 장례식에서 행한 式辭(1976)에도

그의 平時의 행동은 과연 우리의 귀감이었읍니다. 십여년전에 도남은 환갑을 지냈는데, 제가 도남을 評해서 대(竹)라고 했읍니다. 梅蘭菊竹 四君子 중에서 확실히 대(竹)인데, 바람을 일으키는 대라고 해서 그 사람의 人格을 높이 評한 일이 있읍니다. 오늘날까지 陶南의 행동, 학문외의 행동도 본받을만한 바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바람을 일으키는 대(竹)」라는 말이 대단히 인상적이다. 그러한 학문 자세와 성격의 소유자였기에 4·19후「자유당의 부정·부패에 항거한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고 외치고 나선 4·25교수데모 때에는 다른 老敎授들과 함께 선두에 나서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陶南이기에 장덕순 교수는 말하기를

『선생께서는 민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古典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국문학을 하나의 生命體로 파악하여 그를 體系化했고, 그 內面에는「은근」과「끈기」라는 우리 고유의 정신적 힘이 흐르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은근과 끈기 있는 선생의 學風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계승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陶南의 怒濤같은 패기, 大河의 웅변, 학문적 정열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사실, 나 역시 이제와서는 20여년전의 일이거니와 학부 학생 강의시간에「멋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때 약속이나 한듯이 학생들이 소리높여 자신있게「은근과 끈기」라고 답하는 것이 아니가, 약간 놀라움과 함께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가하니, 고교 국어독본에 나온 陶南의 글에「은근과 끈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만큼「은근과 끈기」라는 말은 우리 젊은이들의 정신세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南廣祐박사(인하대 명예교수)는 그가 재학 당시 文理大 국어국문학과 교수로는 국문학에 趙潤濟, 李秉岐, 국어학에 一石 李熙昇, 心岳 李崇寧, 一簑 方鍾鉉 교수해서 모두 다섯 분이 전임으로 계셨다고 하면서 특히 스승 一石에 관하여 말한 바 있다. 즉,

『선생께선 국어학 전공이셨지만 梨專에서 文科교수로 계신 관계로 국문학에도 관심을 보이셨다. 그래서 著書로는『歷代朝鮮文學精華』(1938),『朝鮮文學研究抄』(46)『朝鮮語學論攷』(47)『한글맞춤법통일안강의』(46)『國語學槪說』(55)『국어대사전』(61) 등 어문학 관계의 것이 두루 있다.「國語學槪說」은 代表著書로 後학들에게 좋은 指針書가 되었고「국어대사전」은 23만 단어收錄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전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여러 권의 중·고교 문법교과서를 가지고 계신데 흔히 최현배 문법, 이희승 문법하면 쌍벽으로 일컬어지고 延大에 가는 학생은 외솔(최현배선생의 아호) 문법을, 서울대에 가는 학생은 一石문법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5·60년대 大入試준비의 흐름처럼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외솔선생의 우리말본이 있음에 比해 一石선생은 그런 理論書가 나오지 않았음이 유감인데 文理大의 文法論 講義案이 단행본으로 나와 있던들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고 했고, 詩作과 隨筆에도 一家를 이룬 老大家임을 상기시켰다.

『선생은 앞에 들어보인 여러 업적밖에도 詩作도 하시고 珠玉같은 隨筆도 쓰신 분이시다. 詩集에는「박꽃」「心靈의 破片」이 있는데 우리의 傳統的인 時調作品도 들어 있다. 수필집에는「벙어리 냉가슴」「소경의 잠꼬대」「먹추의 말참견」이 있다.「벙어리·소경·먹추」임을 자처하시는지는 몰라도 세상 돌아가는 일을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듣고 옳게 판단하셔서 빈틈없는 글솜씨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다 하고 있으시다. 작문교과서도 있으며「한글 글짓기지도회장」으로 작문교육에도 애정을 기울이셨다』

고 一石의 다양한 삶과 왕성한 활동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였다.

一石의 人品을 나타내는 말로는「딸깍발이의 自尊心」꼬장꼬장한 고지식,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겻불을 안쬔다는「志操」가 말하여지거니와 한국인의 이상인「선비」의 典型이라고 하겠다.

그는 평생을 國語醇化에 바쳐오고 있거니와『인생은 흐르는 강물같은 것이요』라고 九旬을 넘기신 국어학자 一石은 그의 達觀된 경지를 후학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다.(人物界, 1989. 1. 1 2 3)

一石은 현재도 한국어문교육연구회 회장, 인촌기념회 이사장, 학술원 원로회원등으로 한국의 원로학자임을 과시하고 있다.

모임 探訪

商大13회同窓會

「뭉치자 돕자 빛내자」라는 商大同窓會의 캐치프레이즈를 創立目的으로 하고 모인 商大 13회同窓會。

지난 1955년에 入學한 동기들의 모임체로 당시가 檀紀 4288년이었던 까닭에 商大88同窓會로도 불린다。

총 3백50명의 入學生중 몇분이 作故하고 현재는 30여명의 海外同門을 포함、3백26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까지 앞만 보고 뛰어온 젊은 시절을 정리하고 앞으로는 옛學窓時節을 회상하며 故友들과의 友誼를 다져 가슴속의 뜨거운 情을 풀어 보고자 모이게되었다」는 裵柱元동창회장의 說明처럼 서로돕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다。

裵柱元회장

同會에서 벌이고 있는 주요 행사는 연4회에 걸친 定期모임과 慶弔事때의 모임 그리고 각종 취미모임을 들수 있다。

정기모임에는 매년 4월에 열리는 定期總會와 12월의 送年會 그리고 봄가을 두차례에 걸쳐 열리는 野遊會로 이때에는 1백여명 정도의 회원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同會의 發展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한다。

특히 지난 85년에는 20여평 규모의 동창회 專用事務室인 「八八同窓會」를 開設하여 동창들간의 소식을 전하는 한편 각종 모임을 마련하는 등 동창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李海雄부회장

安承喆부회장

이러한 基盤을 바탕으로 同會에서 펼치고 있는 각종 事業도 매우 활발하다。

우선 동창들의 變更事項이나 消息을 전하는 同窓會報가 1년에 4회씩 發刊되고 있으며 회원들의 사진이 수록된 회원수첩도 만들어 배부하고 있다。

또한 慶弔事에 관한 規則을 마련하고 子女의 結婚이나 昇進 등 祝賀해야할 일에 대해서 祝賀花를 보내고 있으며 弔問시에도 弔意金과 弔花를 전달하고 있다。

金湧式간사

崔秀逸부회장

이밖에 同會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각종 취미모임이 活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81년 창립된 「八八바둑회」(회장 李奎燦・(株)COMTEX社長)는 1년에 6회 정도의 친선바둑경기를 개최하고 있으며 「双八골프회」(회장 李在源(株)키원라스 社長)・「八八산악회」(회장 車永景・石炭公社理事)・「八八테니스회」(회장 姜鍾基・半島纖維(株) 代表)・등이 임원진의 꾸준한 努力으로 活性化 되고 있다。

지난 87년 정기총회때 2년 임기의 회장에 선임되어 이제 임기간을 마무리 하고 있는 裵柱元회장은 「在任기간 동안 단단한 동창회가 될수 있도록 會의 기금을 造成하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초대회장때에는 會의 기반을 다졌고 2・3대회장때에는 동창회사무실을 운영하는등 동창간의 紐帶를 엮는데 노력했으며 제가 맡은 4대때에는 기금조성에 박차를 가해 현재 5천여만원의 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人間으로서 秋收期에 접어든 우리 동문들이 서로의 유대관계를 견고히 해 생의 보람을 느낄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力說한다。

3백여 회원 年2회 野遊會 열어
專用사무실 개설, 會誌도 발간

한편 同會의 實務를 맡고 있는 金湧式간사는 「동창회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 동창들과 만날수 있는 자리가 많아진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며 「앞으로는 우리의 힘으로 모아진 기금을 더욱 늘려 총동창회나 모교에 대한 지원도 활발히 할 계획이라」고 한다。

끝으로 同會의 역대 회장과 현 임원진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1대會長:申復泳(韓國銀行 監督院 副院長) ▲2・3대會長:李承英(三星信用카드(株) 代表理事) ▲4대會長:裵柱元(亞新海運(株) 社長) 副會長:安承喆(中小企業銀行長)・李海雄(CALKOBEN(株) 代表)・崔秀逸(仁川製鐵(株) 社長) 幹事:金湧式(安國火災保險(株) 相談役)

齒大18회同窓會

母校돕기운동 펼쳐가는 4・19世代
地域社會 봉사하는 모범 實踐家들

不義에 항거하였던 4・19혁명의 主役으로서 激動과 窮乏의 시대적 역경을 딛고 이제는 어엿한 사회의 중견으로 발판을 굳힌 「齒大 18회同窓會」。

이들 同期들은 58년에 入學하여 64년에 卒業하였으며 이제는 人生의 중반에서 서로의 삶을 뒤돌아 보고 앞날을 설계하려는 意志로 굳게 뭉쳐 있다。

同會員들은 학교를 卒業한후 軍醫官으로 군에 복무하거나 母校부속병원에서 修練醫등으로 근무하게 됨으로써 뿔뿔히 흩어져 산발적인 모임을 가져오다 지난 70년대 초반 정식 창립총회를 열고 「齒大18회同窓會」를 발족하였다。

具昌書회장

同會는 전체모임을 4계절에 한번씩 열도록 하고 있으며 이밖에 慶弔事시에도 수시모임을 가지며 동기간의 情을 나누고 있다。

이중 매년 12월 18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한해를 마무리하는 送年會를 겸한 定期總會를 개최한다。

특히 두달에 한번씩 열리는 골프모임은 단지 스포츠 교류를 통한 체력단련이라는 의미외에 동창회 운영에 관한 진지한 토론과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중요한 자리이기도 하다。

同會가 밝히는 올해의 사업계획은 다양하다。 먼저 이제까지 소홀히 해왔던 기금조성에 힘을 기울여 母校支援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친목도모를 위해 夫婦同伴여행도 구상중이며 각종 스포츠 모임을 활성화하여 求心力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同會는 齒醫學에 관한 학문적 交流도 계획하고 있다。

점차 늘어나는 새로운 정보나 지식에 대한 硏究와 함께 세미나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비디오나 슬라이드를 통한 再敎育도 실시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齒大18회동기들은 모두 齒醫學界의 반짝이는 별들과 같은 존재』라고 소개하는 具昌書 18회동창회장은 이어『대부분의 동기들이 開業을 해 齒醫術을 펴고 있으며 자신이 속해있는 地域社會의 지도적 역군이 되어 각종 啓蒙運動에 솔선수범하는 實踐家들이라』고 자랑이 대단하다。

具회장은 『사회에 나가 활동하면서도 母校는 늘 마음속의 큰울타리』라며 『잊어졌던 동기간의 情을 잇고 사회활동으로 잠시 잊었던 愛校心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任員회의를 자주 소집하고 있다。

同會員들은 대부분이 開業醫로 현회장인 具昌書동문은 오래도록 동부이촌동에 살면서 이 지역 齒醫術발전은 물론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구파이다。

울산에서 개업한 金成龍동문은 백화점을 경영하는등 사업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夫三煥동문은 제주도에서 개업하여 제주시치과의사협회장을 역임하며 방송매체를 통한 구강보건계몽운동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同會의 총무직을 맡고 있는 林明洙동문은 藥師면허도 소지하여 다재다능함을 보이고 있으며 尹漢哲동문은 부분틀니에 관한 고정장치를 개발하여 발명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밖에 해외거주 동문들 중 黃成鳳동문이 南加州大에서 補綴學교수로 명성을 날리며 LA한인치과의사회회장직을 역임하기도。 白亨烈동문도 인디애나주립대의 구강외과 교수로 활약하고 있다。

끝으로 역대 회장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1대會長:崔琪彩(최치과원장) ▲2대회장:高鎭洙(고진수치과원장) ▲3대회장:金杜炫(김두현치과원장) ▲4대會長:朴憲鐵(박헌철치과원장) ▲5대會長:韓相昱(한치과원장) ▲6대會長:具昌書(구창서치과원장)

期・科・서클활동을 소개하고 싶은 모임이 있으면 아래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702－2233～5

89年의 展望 초대석④

韓國政治의 向方

民主의 正道에서 벗어난 獨裁는 腐敗만 助長

道德性 확립시켜「奉仕의 길」定立이 時急

權力의 正統性이 이루어져야 和合과 發展이룩

軍의 支援없는 政權、政局安定이룩키 어려워

金 在 淳
〈52년 商大卒·6選議員
本會副會長·國會議長〉

指導者의 리더쉽 크게 要求되는 긴박한 時期

—北方政策엔 愼重을, 經濟발전엔 勤勞의욕 높여야

民主化 熱望에 다시는 試行錯誤 있어선 안돼

民主化로 나아가고 있는 轉換期的 時期는 그동안 求心的으로만 달려왔던 權力이 放射되어 遠心的으로 떠져나가고 있는 매우 어려운 고비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民主和合과 政局安定에 걸림돌이 될지 고임돌이 될지를 깊이 思慮함이 없이 政治圈은 물론, 온국민의 관심과 열기가 中間評價問題에 쏠려 있다. 앞으로 우리 政治가 나아가야할 향방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韓國政治의 바탕

이제는 우리 경제력이 共產圈조차도 부러워할 정도가 되었고,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정치혼미 가운데서도 우리는 드디어 正統性 있는 政府를 이루어 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한민족의 저력을 유감없이 과시하기도 했다.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가 얻은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 회복이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자긍심이야말로 곧 민족의 힘이기에 그 무엇보다도 반갑기 그지 없다.

이제 우리는 그와같은 경제력과 正統性을 확보한 民主政府, 그리고 올림픽을 통해 회복한 민족의 自己肯定, 이런 요소를 갖추고 북쪽을 바라보면서 統一을 응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정치의 바탕이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위치인 것이다.

韓國政治의 틀

우리나라 정치에는 하나의 틀(Frame)이 있다. 누가 政權을 잡던지 이 틀을 넘을 수도 깰수도 없다.

우리나라 정치의 틀가운데 첫째로 중요한 것이 권력의 正統性(Legitimacy)이다. 권력이 정통성을 잃으면 아무리 잘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국민이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는 전통적으로 正統性을 소중하게 여겨왔다. 朝鮮朝 5백년동안에 하나의 脈이 있었다면 그 大義名分이라는 脈이다. 大義名分이 바로 오늘날의 正統性이다.

이러한 정치문화의 전통이 우리 민족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正統性을 부여받지 못한 권력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힘이 없게 되어 있다.

둘째 요건은 自由經濟體制이다.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많고 땅이 좁은 나라에서 국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交易을 하며 原資材를 들여다가 가공해서 수출하는 방법밖에는 살아갈 길이 없다. 自由經濟體制―이것은 우리의 숙명적 요건이다.

세번째는 自由民主主義體制이다. 이것은 韓國的 要件이라기보다 世界的이고 文明的인 要件이다. 부시 美國대통령도 취임연설에서 강조한바 있지만, 自由民主主義와 社會主義, 共產主義에 대한 역사적 결판은 끝났다. 지금 소련의 고르바쵸프가「페레스트로이카」(改革)를 외치고 있고 중국의 鄧小平도 개방을 서두르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40여년동안은 말할것도 없고 지금도 이데올로기 문제―自由民主主義냐, 社會主義나, 共產主義냐 하는 문제를 갖고 더듬거리고 있는 형상이다.

이제부터라도 단호하게 자유민주주의의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전세계가 다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권력추구적인 獨裁를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건 친구가 되고자 하는 나라가 없다.

네번째 요건은 軍部의 支持와 신뢰를 받는 정권이어야 한다. 이 말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말이긴 하지만, 軍의 지지없는 한국의 정치안정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南北分斷, 軍事的 對峙라는 객관적 정세도 정세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민주정치의 생리와 軍의 생리가 갈등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정치를 하고 政黨政治를 해나가려면 아닌게 아니라 젊은 軍人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대목과 현실적인 사정이 생기게 마련이다. 흔히 민주정치는 妥協政治, 서로 주고받는 정치라고 한다. 그러한 거래속에서 적지않은 의혹도 발생되게 마련이다. 또 政黨政治를 하려면 싸우게 되어 있다. 政爭에 익숙치 않은 軍人으로서는 그런 사태가 국가의 위기처럼 불안해 보이기도 한다. 어쨌든 우리가 地理上 숙명적으로 4대강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 독립국가로서 體統을 지켜가려면 軍人이 없을 수가 없고 그 軍人의 눈동자가 빛이 나야 하는데, 그러한 軍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정권이 들어설경우 그 정권은 정치를 제대로 펴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는 均等社會이다. 우리가 單一民族이어서 그런지 균등에 대한 요구가 다른 어느 민족이나 국민보다도 크다. 균등한 정치로 균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를 갖지 않으면 사회안정을 기할 수 없다.

만일 이 均等意識을 저버리고「富益富 貧益貧」의 경제정책이나「높은사람 낮은사람」의 身分構造가 형성, 固着된다면 한국정치는 무시할 수 없는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韓國의 當面課題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정치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역시「민주화」가 첫째이고, 두번째가 北方政策, 세번째가 경제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로 꼽는「민주화」라는 것이 말은 간단하고 쉬운것 같으나 실제로는 與野間, 與黨내부와 각 野黨間에도 민주화에 대한 개념과 접근방법조차 일치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또 野黨은 나름대로 우리는 왜 野黨을 한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野黨의 길을 걷는다 하는 것을 국민앞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政治家의 일차적 책임은 뭐니뭐니 해도 政局의 안정에 있다. 어느 사람의 思想이나 政黨의 정책이 아무리 진보적이고 혁신적이라고 하더라도 政局의 안정없이는 그와같은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

최근 中間評價 문제에 대해서 설왕설래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지만,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약 中間評價가 政局의 안정에 해를 끼칠 것 같으면 中間評價는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中間評價라는 超憲法的인 일을 함에 있어서 사회가 불안해지고 政局이 혼란스럽게 된다면 이를 방지하는 일차적 책임은 政權담당자는 물론 與野정치인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 선거시 입후보했던 지금의 野黨지도자들이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보면 野黨지도자들도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발목을 잡는다든가, 中間評價를 꼭 해야 된다고 물고 늘어지자는 태도는 결코 政治道義가 아니다.

이제는 野黨도 자유민주의 체제를 완성시키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自黨의 역할과 位相을 스스로 확정하고 국민앞에 제시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국가의 과제와 정국의 안정이라는 大義를 저버림이 없이 자기가 갈 길을 간다면 누구하나 막을 사람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국민의 신뢰와 격려를 받을 것이다.

지금 6공화국의 盧泰愚 대통령은 참으로 엄청나게 큰 짐을 걸머지고 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는 마키아벨리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그 어려운 몫을 盧대통령이 안고 있는 것이다. 서두에 지적한 바대로 지금 우리의 민주화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위기처럼 보이는 국면은 권력의 방만한 遠心作用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동안 維新이다, 5공화국이다 해서 권력은 核을 향해서 구심적으로만 집중해 왔다. 그러다가 6공화국이 출범하고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權力이 遠心的으로 풀려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에서 權力의 核을 향한 求心作用을 일으킬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날 정치가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지도자의 리더쉽(Leadership)이다.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조직을 활성화하는 것과 조직구성원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시켜 나가는 일이다. 따라서 오늘날처럼 지도자의 리더쉽이 간절하고 요긴하게 요청되는 때는 일찌기 없었다. 지금 작용하고 있는 강한 遠心力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는 강한 求心的인 리더쉽이 발휘되지 않고서는 民主化 자체가 또 한번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는 예감때문에 리더쉽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다음 과제는 北方外交政策과 統一政策의 추진문제이다.

그동안 7·7대통령 特別宣言, UN총회에서의 대통령 연설이 있었고, 판문점에서 각종 南北會談이 개최되었다. 또 鄭周永 現代會長이 以北을 다녀오는 등 지금은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떠들석한 형편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北쪽은 아직도 自閉的인 症狀속에서 아무런 동요나 변화의 징후를 可視的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北쪽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무엇인가? 北쪽이 갖고 있는 유일한 카드가 있다면, 그것은 南韓社會를 교란시켜 소위「南朝鮮革命」을 어떻게 하면 일으키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잘 감안하여 北方政策과 統一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얼마전 西獨의 겐셔 外相이 국회를 방문했다. 그는「東方政策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내 정치세력을 다지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두었고 그리고 나토(NATO)와의 관계를 튼튼하게 하면서 주변국가와의 外交를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또「적어도 共產主義者, 이데올로기의 노예라고 할수 있는 그사람들과 무엇이던지 하려면 이편의 힘이 튼튼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런 겐셔의 말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北方政策을 다듬는데 있어서 깊이 생각해야 될 忠言이라 하겠다.

또 하나의 과제로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지금 政界가 시끄럽고 勞使와 學園문제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뻗쳐나가고 있는 것은 경제가 이 정도로 튼튼해졌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경제가 허약했던들 아마 정치·사회문제에 있어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을 것이다.

經濟成長의 要諦、경제성장의 비밀은 높은 勤勞意慾이다. 勤勞意慾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정착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경제문제의 시작이요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역시 일하는 사람、노동자는 물론이고 경영인들에게도 일하려는 의욕이 날 수 있는 그런 政治風土를 만들어야 하며、바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정치인들의 사명이 있다고 하겠다.

韓國政治의 向方

결론적으로 한국정치의 궁극적인 방향은 우리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과거에는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강한 나라였다. 산업사회의 초기에는 資源과 勞動力이 중요했지만、지금의 後期産業社會에서는 지식과 도덕적 자질을 갖춘 人間資本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

日本은 제3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테크 시대의 물결을 타고 성공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우수한 두뇌를 조직화해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다음은 도덕성문제이다. 美國은 큰 나라이지만 마약에 찌들고 있고 蘇聯은 알콜에 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큰 나라는 강한 도덕성이 있어야 하며 國民像이 정립되어야 한다.

政治權力은 도덕성을 따라야 한다. 政治權力은 도덕성을 잠시라도 상실해서는 안된다. 취임연설에서 美國대통령이 정치권력의 도덕성을 잘 표현하고 있기에 인용해 본다.

「주여、힘을 주소서、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하거나 세상에 뽐내기 위한 힘과 名聲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힘을 주소서」.

사실 정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전부이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고지도자는 국민의 힘의 근원이 되는 自尊心을 더욱 키워주고 또 自信感을 가진 국민의 視線을 밖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특히 해외로 우리 국민들이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진취적인 氣像을 가지고 文化交流에 열중하고 交易을 진취적으로 하면 그만큼 國內政治는 안정되고 국민생활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民主和合을 위한 祈禱

우리가 民主化로 가는 길에 있어서 지금 政權을 담당한 쪽은 앞에서 말한 여러 문제와 과제들의 重壓 때문에 대단히 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깨질세라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주어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知性과 민족적 自尊心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盧泰愚政權은 과거의 政權과는 다르다. 누구의 政權이 아니라 國民이 투표하여 세운 民主和合의 政權이다. [illegible]

다음호에는 모교 부총장인 金榮國교수 (政治學)의 「國際情勢」에 대한 글이 게재됩니다.

停年退任교수와 한 마디……

半平生을 母校에 몸바쳐온 열세분 教授의 정년퇴임식이 지난 2월 28일 母校문화관에서 거행되었다. 後學육성과 學問연구에 專念해온 老教授들의 勞苦에 尊敬과 感謝의 말씀을 드린다. 이분들의 獻身의 뜻을 기리는 뜻에서 本欄을 통해 「한마디의 말씀」을 받아 싣는다. 〈편집자 註〉

梁秉祐 교수
人文大·西洋史學

『老兵은 죽지않고 사라진다고들 하는데, 사라질 때까지는 하던 研究를 계속하겠다』는 퇴임소감. 46년 日本 경도대 문과부 史學科를 졸업, 67년부터 모교 文理大 西洋史學科에 奉職해 왔다. 在職중 西洋史學會長을 역임했으며 한국학술협의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學生과의 距離感 안타까워"

퇴임이라는 것을 이제까지 생활의 끝이라기보다는 연속적인 과정속의 하나의 계기로 본다며 20여년간의 교수생활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최근 학생들과 교수들간의 거리가 疏遠해 지는것 같아 안타깝다며 교수들의 연구실은 항상 開放되어 있음을 강조하기도. 지난 88년에는 서울市 學術賞을 受賞한 바 있다.

閔虎基 교수
自然大·數學

"學問은 진지한 삶의 姿勢로"

46년 연희전문학교 理科를 졸업하고 51년 美國 일리노이 工科大學에서 碩士학위를 받고 53년에 귀국, 71년 母校에서 工學博士학위를 취득하였다.

66년부터 모교에 奉職하면서 23년간 工大 응용수학과와 自然大 수학과에서 후진양성과 학문연구에 전념해 왔다.

『너무 빠르다』는 느낌이 들어 아직 10년 정도는 강의도 연구도 더 할 수 있겠다』며 퇴임후에는 학창시절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온 「初期宇宙論」에 대한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老教授는 『열심히 사는 모습속에서 진정한 學問이 잉태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成百能 교수
自然大·物理學

『왔다가 간다는것이 자연의 순리라고 생각하니 퇴임이라고 해도 별 소감이 없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지 못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퇴임소감을 밝힌다.

55년 日本 국립 도오후구대학을 졸업하고 58년부터 31년 10개월간 奉職했다. 한국역사상 최초로 核物理學 실험을 시작한 先驅者이며 광·

"教育難題 극복해 母校발전을"

중간자 핵물리화학에 관한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핵물리화학계의 巨頭이다. 한국의 과학교육과 관련, 주입식교육으로 독창력이 부족하다며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퇴임후에도 주3시간씩 物理學강의를 계속한다.

張世憲 교수
自然大·化學

"學園亂脈相 신속히 是正을"

46년 한국사람으로는 처음으로 경성제대 이공학부 화학과를 졸업한후 모교에 奉職해 오면서 우리나라 액체이론과 표면화학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소신껏 연구하며 40여년간을 외곬으로 살아온 것에 만족한다』고 퇴임소감을 밝히며 『이제는 國內에서만 安住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世界속으로 雄飛하는 진정한 학문의 전당인 서울대를 이루도록 모든 서울大人들이 힘써야 한다』고 역설한다.

專功分野에 있어 「표면화학분야에서 고체표면위의 기체흡착」「다공성 물질의 동공부피 분포분석」등을 研究해 왔으며 大韓化學會長을 역임하고 學術院 會員으로 있다.

梁興錫 교수
工大·電氣工學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앉아서 자리만 지킨것 같아 미안할 뿐』이라는 겸손한 퇴임소감. 日本 와세다대 在學중 解放을 맞으며 母校2학년으로 편입, 졸업한후 38년간 奉職해오면서 國內 최초로 制御工學理論을 도입, 電氣工學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大學院 중심대학 定着 시급"

『母校가 하루빨리 大學院 중심의 大學으로 정착되어 유능한 교수진과 고급기계를 확보하여 世界的인 대학으로 발전하였으면 좋겠다』며 『이와같은 모교 발전을 위해서는 同窓會에서도 큰역할을 맡아야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퇴임후에도 모교에 세워질 「기초전력공학 공동연구소」 소장을 맡아 연구를 계속할 계획.

李良厚 교수
農大·農家政學

"사랑과 寬容의 美德가져야"

『제자들이 退任式을 준비한다며 부산을 떠는것을 보고 정말 퇴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30여년동안 많은 선후배 교수님들과 학생들 덕택으로 무사히 지낼수 있었다』며 겸손해 한다.

『學問에는 停年이 없다고 생각해요. 건강이 허락하는한 研究를 계속하고 싶다』며 在職중, 農家政學의 체계를 제대로 세워놓지 못한것이 아쉽다고.

42년 이화여자전문학교를 졸업하고 55년 모교 農科大學 부속 중등교원 양성소 강사로 인연을 맺은 뒤, 미네소타 대학 대학원을 수료한 61년부터 모교교수로 奉職해 왔다.

金鍾喆 교수
師範大·教育學

45년 만주건국대학정치과를 졸업하고 渡美, 教育行政學을 專功한뒤 중앙대 교수를 거쳐 모교에서 奉職해 왔다.

주요 연구분야는 교육행정 교육정책·고등교육인데 특히 교육행정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로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등 8권의 저서를 出刊.

"講義와 著述활동 계속할터"

『좋은 弟子,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다 停年退任을 맞게 되어 기쁘고 만족스럽다』며 담담하게 퇴임소감을 피력한다.

在職중 교육정책의 심의및 평가에 참여하였지만 화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교육행정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올바른 교육정책수립의 어려움을 털어 놓기도.

金應泰 교수
師範大·數學教育

"學生본분 제대로 지켜가야"

『40여년동안 教育界에 몸담고 있었지만 하던일을 제대로 끝맺지 못하고 퇴임하게 되어 아쉽다』며 『이제까지 도와준 주위 교수들과 후배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고 겸허한 퇴임소감을 피력

『在職중 소위 운동권학생들을 볼때면 그 思想은 좋지만 학생의 직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최소한 사회에 나갈 기반을 대학내에서 닦아 두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大學教育制度에 관해 『학부에서는 교양위주의 학문을 쌓고 대학원에 가서는 전문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대학원 위주의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퇴임후에는 數學教育史에 관한 연구자료를 정리할 계획이다.

李泰寧 교수
師範大·化學教育

『停年退任으로 할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대량으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이제는 소화할 시간도 없이 바빠질 것같다』며 퇴임후에는 『나 혼자만의 관심사를 研究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나눠 가질수 있는 연구를 하겠다』며 의미있는 퇴임소감을 밝힌다.

史學者이며 前大學院長을 역임한 父親 李丙燾박사의 영향으로 지칠줄 모르는 연구활동을 해왔다.

"느긋함과 自負感을 갖도록"

퇴임후에도 研究所를 설립하여 「용매효과」「활성산소가 관여하는 유기화학과 생화학」 등의 논문을 정리·발표할 계획이다.

54년 성균관대 전임강사와 국방부 과학연구소 연구실장을 역임한후 56년부터 모교에 奉職해왔다.

韓大錫 교수
藥大·藥學

"定分知足했기에 后悔없어"

『停年이란 단지 육체적 능력의 경계선을 의미할 뿐이며 정신적 활동은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년이라는게 실감이 안나고 동요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퇴임소감을 피력.

51년 藥大를 졸업한후 醫大·藥大에 奉職해오면서 약물성분분석과 함께 약용식물분류와 재배실험등의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퇴임후에는 이미 발간한 생약규격집의 해설서와 생약도감을 쓸 생각이라며 『우리나라 漢藥界는 단지 고문헌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제는 한약에 있어서도 科學化를 이룰때가 되었다』며 앞으로 한약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鄭回甲 교수
音大·作曲

『퇴임한다고 해도 이전과 마찬가로 大學院에도 出講해야 하고 音樂協會 일도 해야 돼 최근까지 퇴임을 실감하지 못했는데 학교 研究室을 비워주려니 조금 느껴지는 바가 있었다』며 의욕과 활기에 넘치는 퇴임소감을 밝힌다.

"忍은 仁을 이끄는 필수조건"

51년 音大 作曲科를 졸업하고 61년부터 모교에 奉職해 오면서 작곡과장·학장보·학장을 맡는 등 후진양성에 힘써왔다.

지난 62년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했던 「가야고와 관현악을 위한 주제와 변주곡」 외에 40여편의 작품을 발표.

퇴임후에는 지난 1월 취임한 음악협회 일과 함께 오래전부터 구상한 오페라를 쓸 계획이다.

申晃雨 교수
醫大·醫學

"勉學분위기 조성이 큰 課題"

50년 醫大 졸업후 그간 산부인과 專門醫로서 지금의 서울대 병원을 건설하는데 주력해온 한편 교수로서 후진양성에도 많은 힘을 기울여 왔다.

30여년이라는 오랜기간 學界와 醫療界에 전념하고 건강을 지킬수 있었던 것을 모든 선후배의 덕으로 돌리고 『그간 주위의 선배나 동료들이 거의 돌아가셨거나 자리를 떠나셨는데 혼자서 외람되게 강단을 지켜 송구스럽다』며 퇴임소감을 대신한다. 이제 모교도 선후배가 서로 이끌어 주고 존경하는 풍토가 자리잡혀 「세계속의 서울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서울대인의 대동단결을 촉구하기도.

安炯珪 교수
齒大·齒醫學

『國大案 반대를 비롯해 지금까지 서울대가 겪어온 어려움은 우리민족의 어려움 그 자체였으며 서울대인인 나 자신의 어려움도 그 안에 있었다』며 그간의 재임기간을 정리한다.

47년 齒科大學을 졸업한뒤 53년부터 35년 11개월을 奉職해왔다.

"精誠다해 노력하는 姿勢로"

그동안 치과대학 학생과장·병원장·학장 그리고 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구강보건협회의 각 직책을 역임했으며 치과방사선분야의 권위자로 명성을 날리기도.

항상 정리하는 자세로 살아왔기 때문에 퇴임이라고 해서 특별히 정리해야 될 일은 없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대학원에 계속 出講하겠다고.

▲盧 桓(38년 師大卒·獨立有功者協會員)=최근 열린 東南亞綜合藝術大賞展에서 書藝部門特別賞을 受賞. 盧동문은 국가유공자미술협의회 회원이다.

▲朱權源(43년 醫大卒·母校名譽教授)=최근 韓國賠償醫學會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에 선출됐다.

▲金東順(44년 齒大卒·韓國齒政會會長)=2월25일 열린 韓國齒政會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됐다.

▲權彛赫(47년 醫大卒·前母校總長)=2월28일 열린 제24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金相廈(49년 文理大卒·本會副會長·大韓商議會長)=2월23일 열린 産技協 정기총회에서 고문으로 추대됨.

▲李相洙(49년 文理大卒·本會理事·科學技術院長)=최근 科學技術院 교수에서 院長에 취임.

▲李應百(49년 師大卒·本報編輯委員·母校名譽教授)=지난 2월13일부터 24일까지 中國山東大學 學術會議에 참석후 3월25일 會長으로 있는 韓國隨筆文學振興會에서 제5회 現代隨筆文學賞(車柱環)과 제7회 現代隨筆文學賞(邊海明) 施賞式을 가졌다.

▲梁在善(51년 師大卒·本會理事·인천직할시 용현여중 교장)=지난 3월1일자로 인천직할시소재 도화여중 교장에서 용현여중 교장으로 전보.

▲尹相澈(51년 藥大卒·冠岳會理事)=2월25일 열린 大韓藥師會 전국 대의원총회에서 3년만에 감사로 재선출됐다.

▲金善弘(55년 工大卒·本會副會長·起亞産業사장)=2월22일 열린 能率協會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에 선출됐다.

▲朴佑炳(56년 工大卒·本會理事·國會議員)=최근 大韓鑛山學會 제11대 회장에 선출됐다.

▲金濬浩(56년 法大卒·本會理事·㈱이스턴여행사 會長)=최근 모교 基督教同門會 會長으로 선출.

▲柳哲鎬(56년 法大卒·本會理事·東方證券사장)=3월15일 漢城投資金融사장에서 東方證券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李鍾守(56년 齒大卒·本會理事·大韓齒科醫師協會長)=3월1일 日本 치과의사회초청으로 訪日하여 兩會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한편 제14차 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를 홍보하고 3일 귀국.

▲南惪祐(56년 大學院卒·本會理事·貿協會長)=2월22일 열린 한국태평양협력위원회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됐다.

▲金鍾星(57년 工大卒·本會理事·大韓製粉사장)=최근 한국제분공업협회 새회장으로 선임.

▲金興起(57년 文理大卒·本會理事·前産銀총재)=2월27일 금호그룹의 錦湖미쓰이도아츠㈜ 사장에 선임됐다.

▲金庸來

邦 주총에서 부사장에 選任

▲李康爀(58년 法大卒·韓國外國語大教授)=새학기에 韓國外國語大學校 부총장겸 대학원장으로 임명됐다.

▲朴奇烈(58년 師大卒·경기도교육위원회 용곡교원연수원 교육연구사)=최근「젊은 사관후보생의 슬픈 연가」라는 책을 미래문화사에서 펴냈다.

▲金元珠(58년 商大卒·母校經營大教授)=최근 한국경영학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安秉華(58년 文理大卒·本會理事·韓國電力사장)=2월21일 열린 한국원자력산업회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에 선출됐다.

▲崔永喆(58년 文理大卒·文理大同窓會長·체신부장관)=최근 열린 한국서화작가협회총회에서 제6대 회장에 선출됐다.

▲朴松圭(58년 法大卒)=2월23일 숭실대학교에서「한국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 받음.

動 靜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職場을 옮기셨거나 職位의 변동을 비롯, 개인의 활동 및 업적에 이르기까지 보다 상세하게 알리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읍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 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읍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電話 : (702)2233~5
(717)8536 ~7

▲千命基(58년 法大卒·前保社部長官)=최근 열린 한국식품공업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姜泳圭(58년 齒大卒·大韓齒科醫師協會총무이

▲李英浩(60년 師大卒·本會理事·明知實業專門大學教授)=지난 2월3일 펄벅사회복지재단의 한국자문위원으로 선임됐다.

▲鄭英彩(61년 保健大學院卒·中央大제2캠퍼스副總長)=최근 中央大學校 제2캠퍼스副總長으로 취임.

▲文瑞龍(62년 文理大卒·水原 유신고교사)=지난 1월27일 수원에서 극단「한가람」을 창단, 2월18일부터 3월5일까지 극단城소극장에서 슈테판 안드레스의 중편소설「우리는 유토피아」를 개작, 각색하여 연출까지 맡아 창단 공연을 가짐.

▲李長春(62년 文理大卒·駐오스트리아大使)=3월6일 外務部 본부대사에서 駐오스트리아大使로 임명됐다.

▲梁精康(62년 齒大卒·大韓齒科醫師協會부회장)=3월1일 日本 치과의사회 초청으로 訪日하여 제14차 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를 홍보하고 5일 귀국.

▲兪尙根(62년 行政大學院卒·行政大學院同窓會長·明知大總長)=최근 한국기독실업인회 중앙연합회 회장에 재선되었으며, 23일에는 파키스탄정부로부터 최고훈장을 받음.

전에 기여하다 지난3월 한국도선사협회 상임고문으로 취임.

▲林岡源(67년 工大卒·母校環境大學院教授)=2월23일 열린 대한교통학회 정기총회에서 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鄭寬喜(67년 齒大卒·大韓齒科醫師協會 재무이사)=3월1일 日本 치과의사회 초청으로 訪日, 제14차 아세아태평양 치과회의를 홍보하고 5일 귀국.

▲金炳圭(68년 農大卒·한국경제신문 뉴욕특파원)=3월말 한국경제신문 정치부장에서 뉴욕특파원으로 부임.

▲金興基(70년 工大卒·韓國重工業주단부장)=최근 한국철강협회가 수여하는 제6회 철강상을 수상.

▲劉慶相(70년 醫大卒)=성동구 자양동에 대화외과의원을 개원.

▲金瑛淑(71년 經營大學院卒·清州大教授)=2월27일 延世大學校에서「종업원持株제도가 종업원의 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음.

▲愼重大(72년 法大卒·內務部법무담당관)=최근 內務部 연수원 교무과장에서 법무담당관으로 전보.

▲李仁濟(72년 法大卒·國會議員)=3월16일 民主黨 대변인에 임명됐다.

▲邊海明(75년 師大卒·大韓教聯 副會長)=지난 3월25일 韓國隨筆文學振興會에서 제7회 現代隨筆文學賞을 수상.

▲權五賢(75년 師大卒·大田大강사)=최근 올림픽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올림픽기장 봉사장을

▲현순이(81년 音大卒·바이올리니스트)=영국로얄아카데미의 창립 백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음악교육자 수련 프로그램의 장학금 수혜자로 선발되어, 금년 1월초부터 6주간에 걸친 교육과정과 시험을 거친후 디플로마를 받고 귀국.

掲示板

結婚

▲申相健(60년 師大卒·本會理事·稅務大教授)=2男 俊容군이 3월19일 오후 3시 東水原예식장에서 화촉.

▲鄭天基(83년 醫大卒)군·金賢娥(89년 醫大卒)양=1월28일 롯데월드에서 화촉.

同窓會館 冠岳홀

▲김광민(81년 師大卒·서울사대부중)군·서문경양=4월1일 오후2시30분.

▲이화룡(81년 工大卒·㈜대우)군·임효숙양=4월2일 오후1시30분.

▲정운용(87년 社會大卒·고려무역)군·임혜선양=4월2일 오후3시.

▲최우봉(86년 農大卒)군·홍현숙양=4월5일 오후2시.

▲김성희(86년 醫大卒·국립의료원)군·정현주양=4월7일 오후1시.

▲임대식(82년 人文大卒)군·김정인(89년 師大卒)양=4월7일 오후2시30분.

▲강신윤(83년 工大卒·㈜대우)군·신현주양=4월8일 오후1시.

▲김대희(師大재학중)군·김혜숙양=4월8일 오후2시30분.

▲신극성(81년 師大卒·여의도중학교)군·박상희(85년 師大卒·여의도중학교)양=4월9일 오전11시.

▲김순영(83년 經營大卒·㈜유공)군·김희선양=4월9일 오후12시30분.

▲기성식(87년 人文大卒)군·김현주양=4월9일 오후3

同門을 찾아서

忠南支部 新任會長 吳熙弼 박사

年內 總會 열어 活性化 다짐
大田大總長 맡아 분주한 生活계속

『우리 支部를 18년 동안 이끌어오신 成樂緖회장께서 지난해 말 老患으로 별세하시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회장의 중책을 이어받게 되어 책임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지난 1월 11일 본회 忠南支部 2대 회장에 선출된 吳熙弼동문(大田大學校 總長)은 취임소감을 이같이 밝히면서 미력이나마 支部의 발전, 나아가 본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忠南支部는 본회가 창립된 이듬해인 70년에 발족되어 지방지부 중에서도 先頭走者로 발족을 했고, 또한 이에 걸맞게 조직및 동문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범지부이다.

신임 吳회장은 忠南支部의 창립에서부터 관여하여 幹事長, 副會長을 거쳐 會長에 오른 충남지부의 산 증인이라 할수 있다.

『현재 大田直轄市및 忠南道內에는 약 2천여명의 회원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계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죠. 재문에 忠南은 우리 동문에의해 이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부활동이 아직까지는 理事會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금년에는 어떻게든 전체총회를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라고 吳회장은 앞으로의 청사진을 밝히면서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리라곤 믿지 않으나 현재 職能別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체계를 職能-地域단위로 묶어 점진적으로 전체 회원에 의한 지부운영을 펼쳐가겠다고 밝힌다.

1925년 忠北청원 태생인 吳회장은 53년 모교 文理大 物理學科를 졸업하고 곧바로 忠南大 교수로 발령받아 지난 3월 2일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大田大 총장으로 취임하기 직전까지 36년간을 忠南大에서 몸담고 있었다. 그동안 맡았던 보직만도 教學處長, 總長서리, 文理科大學長, 教育大學院長, 大學院長을 비롯하여 教授協議會長등 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는데, 大田大 재단및 교수회의 적극적인 지지에 의해 초대 총장으로 영입되게 된것도 이러한 행정수완이 높이 평가된듯하다.

『大田大學校는 지난 81년 5개과에 2백60명의 학생으로 개교하였으나 현재는 5개 單科大學 1개 大學院에 학생수 3천5백명을 수용하고 있는, 연륜에 비해 놀라운 발전을 한 종합대학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장기 企劃室에서 마련한 장기 발전계획에 따르면 92년까지는 9개 單科大學에 5개大學院, 학생수 1만5천명의 웅대한 名門私學으로 발전시킬 플랜을 세우고 하나 하나 可視化 시키고 있습니다』

吳동문은 大田은 제2의 수도이자 앞으로 전개될 서해안 시대의 중핵도시로 전망된다며 국내의 두뇌들이 집결하는 大德전문연구단지를 곁에 두고 있어서 大田大의 발전에 더욱 큰 기대를 갖게한다고 하면서 장기발전 계획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吳동문은 이와 함께 大學의 內實化와 國際化를 위해 교수 해외연수및 국제학술교류를 지원하고 또 외국의 명문대학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학술연구 수준을 보다 높이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생애의 마지막 터라 생각하고 지난 36년간 대학교육에 바친 모든 경륜을 여기에서 열매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새로운 의지를 보이는 吳동문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어느 한사람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수및 교직원과 화생 그리고 재단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면서 각계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기를 부탁했다.

현재 韓國物理學會충청지부장이기도한 吳동문은 「대학물리학」외 5권의 저서와 「핵실험으로 인한 大田地區 환경방사능 변화에 관한 연구」등 35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우리나라 원자핵물리학 분야의 권위로 인정받고 있다.

▲尹汝慶(52년 工大卒·東一紡織고문)‖최근 東一紡織 고문에 취임했다.

▲白樂皓(52년 音大卒·本會理事·母校音大學長)‖2월23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대뷔40주년 기념연주회를 KBS교향악단과 함께 가졌다.

▲姜信浩(52년 醫大卒·本會副會長·東亞製藥會長)‖2월28일 정기총회에서 열린 한국제약협회 14대 회장에 재선.

▲車柱環(52년 文理大卒·母校名譽教授)‖지난 3월25일 韓國隨筆文學振興會에서 제5회 現代隨筆文學大賞을 수상.

(57년 法大卒·本會理事·前서울市長)‖3월16일 총무처 장관에 임명됐다.

▲李憲祖(57년 文理大卒·本會理事·金星社사장)‖2월23일 열린 産技協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에 선출됐다.

▲羅雄培(57년 商大卒·本會理事·前副總理)‖오는 91년 大田에서 개최될 국제무역박람회 추진위원장에 최근 임명됐다.

▲張得成(58년 文理大卒·㈱世邦副社長)‖3월2일 열린 ㈱世

사)‖3월1일 日本 치과의사회 초청으로 訪日하여 제14차 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를 홍보하고 3일 귀국.

▲申允植(59년 文理大卒·遞信部次官)‖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텔레콤89학술대회및 전시회에 참가하고, 인도네시아·호주등 아·태지역 통신협력국을 순방하고 3월4일 귀국.

▲鄭根謨(59년 文理大卒·韓國科學財團이사장)‖최근 亞州大 교수에서 한국과학재단이사장에 취임.

▲李晟雨(59년 醫大卒·國立保健院長)‖3월7일 보사부 보건국장에서 국립보건원장으로 승진.

▲鄭希俊(63년 法大卒·中小企業銀行신탁증권부장)‖최근 중소기업은행 퇴계로지점장에서 본점 신탁증권부장으로 전보.

▲申明秀(64년 商大卒·本會理事·東邦油糧會長)‖2월28일 東邦유량 사장에서 회장으로 영전.

▲裵基守(65년 商大卒·朝興銀行桃花洞支店長)‖최근 朝興銀行 영업2부 차장에서 도화동지점장으로 영전.

▲宋征衡(66년 商大卒·中小企業銀行보광동지점장)‖최근 중소기업은행 보광동지점장으로 전보.

▲金相珍(67년 行政大學院卒·韓國導船士協會 상임고문)‖그동안 韓國同協會의 발 船級 회장으로

수상.

▲金泰華(76년 音大卒·音大26회同期會長)‖최근 自宅을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촌아파트 251동 103호로 옮겼다. 403-2109

▲鄭圭珠(77년 音大卒)‖2월17일 동기생 9명과 함께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보칼앙상블의 발표회를 가짐.

▲申 平(78년 法大卒·判事)‖대법원의 법관일본연수과견 결정에 의해 3월25일 일본 慶應大의 방문연구자격으로 부인 趙培淑동문과 함께 渡日.

▲趙培淑(79년 法大卒·大邱地法判事)‖일본 成蹊大學의 객원연구원으로 부군 申平동문과 함께 3월25일 渡日.

▲박수영(79년 齒大卒·박수영치과의원장)‖최근 수원 매탄동 삼성상가 2층으로 병원을 이전 개업. 전화 33-1702.

시30분.

▲조호현(85년 經營大學院卒)군·고정아양‖4월10일 오후12시30분.

▲박지수(86년 師大卒)군·강민정(86년 師大卒)양‖4월15일 오후3시.

▲이명환(83년 工大卒·㈱금성사)군·민정미양‖4월15일 오후4시30분.

▲최형진(80년 工大卒·인하대학교)군·정화정양‖4월16일 오전11시30분.

▲노정호(88년 農大卒)군·백희정양‖4월17일 오후1시30분.

▲신민영(85년 社會大卒·증권감독원)군·이은주양‖4월22일 오전11시.

▲유재훈군·강혜정(87년 師大卒·상계고등학교)양‖4월22일 오후2시.

▲민경렴(85년 自然大卒·㈱태평양화학)군·임영양‖4월23일 오전11시30분.

▲강세웅(87년 醫大卒·서울대학병원)군·손정연(87년 師大卒·동대문여중)양‖4월23일 오후1시.

▲정 회(86년 經營大卒·㈱선경)군·김아영양‖4월23일 오후2시30분.

▲강현구(86년 人文大卒·대홍기획)군·정말순(84년 人文大卒·경신중학교)양‖4월23일 오후4시.

▲오정섭(大學院재학중)군·김은영양‖4월27일 오후12시30분.

▲최창욱(83년 師大卒·㈱문화방송)군·임기희양‖4월28일 12시.

▲한명호(85년 自然大卒)군·김은주양‖4월29일 오후12시30분.

▲배수일(87년 經營大卒)군·조규진양‖4월29일 오후2시.

▲김성락(84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군·김강애양‖4월29일 오후3시30분.

▲남정호(法大재학중)군·조미희양‖4월30일 12시.

▲권경안(86년 師大卒)군·정회성(86년 師大卒)양‖4월30일 오후1시30분.

名譽敎授칼럼

公正去來정책 有感

丁 炳 烋
〈前 社會科學大교수〉

오늘날의 경제사회에 있어서 市場經濟體制에 대한 신뢰와 지지는 크게 확대 강화되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서방제국에 있어서의 국영기업의 민영화나 政府規制産業의 規制緩和措置는 이것을 나타낸다. 또한 사회주의제국의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利潤槪念의 도입이나 기업의 자율성 제고의 움직임, 특히 중국의 대담한 상품경제로의 移行은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장경제체제는 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하는자유와 소비자가 자기의 嗜好에 따라서 상품을 선택하는 자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업의 영업활동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기업간의 競爭을 유발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에 있어서 경쟁의 존재는 당연한 전제로 되고 있다. 경쟁은 소비자의 새로운 욕구에 부응하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이것에 의하여 신상품과 신기술의 개발이나 경영의 합리화등을 부여하고, 또한 이러한 경쟁을 통하여 부당한 가격은 배제되고, 비능률적기업은 도태되고, 경제조직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소비자의 이익은 보장된다.

그러나 기업활동의 自由放任은 결과적으로 獨占을 초래하고 有效한 경쟁을 저해한다. 자유기업 체제하에서의 企業集團의 형성, 기업의 대형화, 寡占化의 경향, 가격의 안정과 이윤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카르텔化 경향등은 흔히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장경제체제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이 체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기 위한 기본적 公共정책으로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즉 獨占禁止政策을 필요로 하게 된다.

계열기업의 相互出資 禁止돼야
準司法的 行政委로 개편 바람직

한국경제가 공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한 것은 1차 5개년계획이 시작된 1962년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에 필요할 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고 국내시장이 협소한 한국경제는, 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정책은 소수의 기업에게 자금과 稅制上의 편중적 지원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대기업과 기업집단이 형성되어 경제력이 이들에게 과다하게 집중되는 獨寡占經濟를 초래하였으며, 산업간의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소득분배의 의곡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정부는 1960년대 중반부터 獨占禁止를 위한 공정거래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차에 걸쳐서 공정거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1975년에는 마침내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여 부분적인 公正去來政策의 도입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공정거래정책은 1980년에 제정된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실시되게 되었으며, 1986년에는 그동안 논란의 대상으로 되어온 企業集團의 규제를 위주로 하는 커다란 法改正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이러한 公正去來法의 내용과 시행경험에 관하여 검토할 여유는 없다. 그러나 그 시행결과를 보면 결코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이나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의 집중은 심화되고, 부당한 기업합병이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정거래정책이 競爭秩序에 관한 공공정책으로서 한국경제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형행법의 제규정이 보완되고 실정되어야 한다. 즉 (1)수 획일적으로 계열기업의 出資總額을 제한하고 계열기업 상호간의 직접적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기업집단에 대한 형식적 규제로부터 탈피하여 개별 기업집단의 구조와 행동및 성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2)지정된 市場支配的 事業者의 남용행위를 보다 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규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企業分割과 같은 構造規制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企業合併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合併指針을 만들어 이것을 공표함은 물론, 부당한 합병을 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合併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져야 하고 (4)명시적 카르텔행위 뿐만 아니라 대규모 寡占事業者間이나 事業者團體의 음성적 카르텔행위도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適用除外카르텔을 인정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5)과다한 상품광고와 기업광고에 대하여 광고비총액규제제도를 도입하고 類似再販賣價格維持行爲도 보다 더 강력하게 단속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公正去來委員會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公正去來委員會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법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결정하고 처분하기에 앞서서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속기관인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정책이 시장경제질서에 관한 기본법으로 정착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이나 미국의 선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公正去來委員會가 準司法的 行政委員會로 개편되고, 公正去來室의 제반 소관업무도 관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公正去來政策과 産業政策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工業發展法」이나 「租稅減免規制法」 및 그밖의 특별법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産業政策은 독과점을 조장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제반법령이나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그밖에 정부의 인허가제도를 비롯한 규제도 크게 緩和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앞으로 새로운 경쟁제한적 법령이나 제도를 만드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경쟁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産業集中과 産業組織에 관한 기본통계를 작성, 공표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의 구조와 행동및 성과에 관한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를 추진하는 일도 공정거래정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나, 시장경제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긴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東南亞 나들이

同門 수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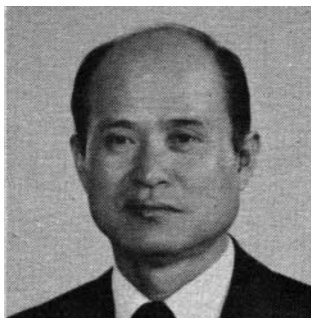
연초 시무식을 마치고 바로 東南亞여행 장도에 올랐다. 전에 台灣과 香港은 가본일이 있으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일랜드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1월 6일 출발해서 19일에 도착했으니 13박 14일의 여정이었다.

미리 旅行하게될 5개국에 대해 나름대로 充分할 만큼 事前知識을 갖고 떠났다. 우리나라는 겨울이지만 이 地方들은 평균온도가 25℃ 내외이니 夏服차림으로 떠났고 슬리퍼와 수영복까지 준비해서 갔다. 복장이 간편해서 집이 한결 가벼웠다.

출발하기 전에 여행경험이 많은 친구 서너명을 만나 자문을 받았다. 돈을 관리하는 방법과 여러가지 많은 조언을 받은것이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번 여행에서 느낀것은 첫째로 우리나라 사람들과 많이 비교가 되는것이 생활태도였다. 그들은 熱帶地方 사람이라서 원래 느긋한편이지만 都市의 교통체증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편이었다. 自動車도 폐차기간이 없기 때문에 바퀴만 구르면 다 운행할 수가 있으므로 거리가 복잡하고 더욱 혼잡했다. 그래도 클랙슨 한번 울리는 법이 없고 매사에 급한 우리나라 사람과는 많은 비교가 되었다. 그 느긋한 生活姿勢가 부럽기 한이 없었다.

둘째는 그들의 얼굴 모습이다. 自然스럽고 天然스러웠다. 단순하고 소박하고 후덕해 보였으며 大泛하고 너그러워 보였다. 그들은 그들의 얼굴을 뚜렷이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근래우리 韓國人 미래의 얼굴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어질고 순박하고 덕성스러운 傳統的인 우리 얼굴은 시골 두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朴 智 洙
〈50년 師大卒
師大同窓會長〉

세째는 잘살든 못살든 간에 自負心을 갖고 있다. 貧富의 차가 가장 심한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自己나름대로의 自負心은 갖고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自負心은 그들의 국토가 自然資源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데서 생겼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들은 대단한 긍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

泰國은 佛敎가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있다. 소박하며 신앙심이 두텁고 친절하다. 이 나라도 貧富의 차가 심하지만 서로의 생활을 비교치 않고 자기의 처지를 숙명으로 받아들여 살아가는 것 같았다. 불교의 因果應報에 따라 전세의 결과가 현세이니 별도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來世에 對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듯 해서 來世觀이 유달리 강하게 보였다.

싱가포르는 참으로 깨끗하다. 도로도 물도 경치도 한없이 淸潔하고 참으로 지상낙원이다. 가든 시티라고 부를만큼 나무와 꽃이 많으며 自由港으로 1년에 2백만명에 육박하는 觀光先進國이라는 프라이드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보이는 데마다 罰則이 게시되어 있어 모든 것을 별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다.

香港은 싱가포르와 견줄만한 自由港으로 세계의 商品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이며 仲介貿易 경제를 지탱해 가고 있기 때문에 香港에서 생산되는 것은 사람뿐이라고 한다. 그들은 享樂的이고 樂天的이며 아주 현실적이며 현재를 가장 행복하게 향유하려는 기풍이 강하게 보였다.

台灣은 [illegible] 공해 때문에 [illegible] 中小企業 [illegible] 家內工業 [illegible] 모든 가족이 [illegible] 大陸에서 [illegible] 民과 原住民 [illegible] TV [illegible] 8백달러 [illegible] GNP가 6 [illegible] 外貨保有 [illegible] 세계 3위 [illegible] 돈 버는 것이 [illegible] 5개국을 돌아보면서 많은 [illegible] 歸國 [illegible] 反省을 했다.

순한 健康法

健康교실 ㉓

洪 文 和
〈37년 藥大卒〉
母校명예교수

1、

어느덧 4월이 되었다。4월이 되면 1년에서 3개월이 되는 1년의 4분지1이 경황없이 세월이 이렇게 후딱 가다가는 금년도 후딱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마저 생긴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가 모두 그렇듯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요새의 느낌이다。왜 그런지 그를 하듯이 웬 건강법이 오늘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건강에 대한 그대로 살면서 그냥 살다 건강을 앞세우고 난스럽게 될 것이 아닌가。

저것도 나쁘다 이것도 나쁘다 해서 사람에게 저런 자기 생활방식에 대한 자신감이 없게 되고 있다。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은 갈피를 못잡고 있지만 자연은 질서정연하게 지켜나가며 겨울이 끝나면 진달래 개나리가 피고 하는 식으로 운행되고 있다。자연의 섭리에는 우연이 없이 어김없이 운행되고 있는데 사람도 자연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문득 河西 金麟厚의 自然歌가 생각난다。

「靑山도 절로 절로 綠水도 절로 절로 山 절로 水 절로 山水間에 나도 절로 그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지금 지구상에서 長壽鄕이라고 불리우는 곳은 이란의 코카서스와 파키스탄의 훈자(Hunza)라는 곳과 비루 등 세군데 있는 모양인데 모두 현대문명과 동떨어져서 태어난 대로 사는 사람들인 모양이다。

하기는 長壽를 하는 것이 생각나름이겠지만 넘어가는 자기의 환경에 나름대로 맞추어 가면서 가는데서 살다가 가는 것이 되는 곳에서 구태어 완전히 동떨어진 생활을 하면서 원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살면서 무얼 서 하나 생각도 미련도 없이 하는 문제는 언제나 없다。떠날 수 있어야 한다。

고생 없이 떠날 때는 아무런 病苦도 없이 잠들 듯이 갈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옛날부터 「無病而終」(병없이 죽는다)이라 하였고 그 상태를 「考終命」이라고 하여 人生의 五福의 하나로 꼽고 있다。

목표로 삼았던 것이 사람은 병이 아니라 생겨서 죽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 수면(睡眠)이 있는 것처럼 한 평생에 考終命이라는 永眠이 있다고 생각한다。

믿고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생각한 아니 생각하면서 살아간 옛사람들의 死生觀이 오히려 좋아 보인다。

2、

요새 왜 그런지 고기가 해롭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기는 지금까지의 관례가 되었는데 ...

두 자기네들의 편리한 유리한 점 때문에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고 본다。그러나 한 가지 건강에 관한 사실은 사람은 雜食동물이라는 점이다。또 그러니까 편식을 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명이 늘어나고 체격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건강에는 여러 가지 각종 요인이 작용하지만 식생활 습관이 다른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일정한 방향을 정하지 않고 다시 몇 가지 식품만 편식을 하게 되면 영양의 균형이 깨어진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하나는 일본에서 1/9을 먹고 있는 것이 기준이라고 하는데 생선을 15·7kg인데 미국 1년의 1/9 정도이다。

로 보면 우리 한국사람들이 하지만 생선은 미국에 비해 많이 먹는 편이다。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듯이 몸이 필요할 때 기운이 떨어졌을 때 영양이 필요한 것이다。

얼마 전 세계 전체를 보면 민족의 형태에 따라 식습관이 다르다。주변 환경 식생활이 형성되어 왔고 먹는 것도 평생 다르다。있는 인생 한 번 없고 있는 가며 살아가는 민족들도 있다。

室內花盆 ⟨下⟩

—— 金 基 善
〈母校農大교수〉

剪整으로 樹勢와 균형을 바로잡아 주도록

盆갈이로 生氣돋구고 1개월뒤 施肥해야

이제 지루한 겨울잠에서 萬物이 깨어나 화사한 봄 새싹으로 새로이 장식하게 된다。이미 家庭에 花盆을 재배하고 있거나 아니면 금년 봄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식물을 가꾸어 보고자 결심한 이들에게 다운 지금이 때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지난 호에 이어 관리적 측면을 좀더 설명하자면 기술적인 면에서 몇 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에 대하여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식물체를 구입할 때는 아무 곳에서나 되는 대로 하지 말고 植物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번식은 약 2주일에 한 번씩 하고 포기나누기를 하거나 꺾꽂이로 새로운 포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이제 市中에 나와 있는 나무와 화초를 고를 때에는 겨울동안 많이 시달린 것을 피하고 해충이 없는 것을 택해야 한다。

작업이 剪整을 하여 盆갈이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樹勢를 더욱 강하게 再生시켜 주는 것이다。

어느 정도 균형잡힌 모양으로 보다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필요 없는 가지를 제거해 주는 것으로서 그 花盆의 植物에 맞는 자람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다。먼저 剪整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지들이 몇 개 길게 뻗어 자라는 경우 많은 가지들이 엉켜 있으면 모양이 나쁘고 통풍이 잘 안되어 병해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또한 가지나 잎이 빽빽하게 밀생하면 잘라주어 새 가지가 발생하도록 해주어야 튼튼한 가지와 잎을 가지게 된다。

공간을 아름답게 써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특히 생장이 왕성한 것은 때 주기적으로 정기적인 작업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위험도 따른다。잘못하면 植物體를 다 죽여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생기게 되는 잎과 자라는 가지를 새로 나오게 하여 3~5cm 정도 남기고 잘라주면 좋다。

고사리 등 잎이 많은 것은 地表面으로부터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흔히 화분에서 보는 것이다。

剪定에 대해 그리고 가꾸는 데 필요한 것을 알아보자。

盆갈이 할 때에는 새로운 흙으로 갈아주고 뿌리를 정리하여 주는 것이 좋다。이때 1개월이 지난 후에 施肥해야 한다。

분갈이를 하는 이유는 화분 속의 흙이 오래되면 양분이 부족하여지고 뿌리가 화분에 꽉 차서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뿌리를 정리하고 새 흙을 넣어주면 植物體는 다시 生氣를 되찾게 된다。

施肥는 盆갈이 후 1개월 정도 지나서 뿌리가 활착된 뒤에 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이 내주신 會費에 의해 同窓會는 발전하고 있읍니다

年會費 내주신분

(理事＝2월17일～2월18일)
(會員＝2월14일～2월17일)

※ 人名밑의 괄호안 숫자는 각 동문들의 卒業年度임.

理事

◇工科大學

▲具珉會(61) ㈜코오롱부사장
▲權淳永(56) 한국비료공업㈜사장
▲自樂晟(49) ㈜도화지질대표
▲孫昌根(53) 성진산업㈜대표이사
▲孫海東(58) ㈜대농사장
▲安相英(63) 부산직할시장
▲李景勳(58) 대우중공업㈜사장
▲李運新(69) 부산파이프㈜사장
▲李膺孝(55) 한국데이타통신사장
▲李春林(53) 현대종합상사㈜회장
▲張起柱(58) ㈜경방전무
▲張炳洙(56) 우양상선㈜대표이사
▲崔正吉(56) 경인강재㈜사장
▲咸景浩(60) 삼원기계㈜사장

◇農科大學

▲明宜植(58)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朴贊英(48) 전풍한발효㈜전무
▲韓慶愚(72) 부산정공㈜사장
▲許宗觀(55) 한국냉장㈜감사

◇文理科大學

▲姜賢旭(61) 전북도지사
▲金建 한국은행총재
▲金德龍(56) 국회의원
▲金泰昇(58) 조달청장
▲朴宇用(63) 한국파마론㈜사장
▲李炯九(63) 재무부차관
▲鄭永儀(59) 산업은행총재
▲崔炳敏(75) 대한펄프공업㈜사장
▲崔丙億(53) 대한생명보험㈜사장
▲洪斗杓(60) 한국전매공사사장

◇美術大學

▲姜泰成(54) 이화여대미술대학장
▲閔哲泓(58) 서울대미대교수

◇法科大學

▲金致善(51) 숭실대총장
▲朴弘植(62) 특허청장
▲裵渡(57) 효성물산㈜대표이사
▲裵命仁(56) 전국가안전기획부장
▲徐尙範(54) 명신종합경비보장㈜
▲申長淳(51) 유정상사사장
▲安明基(56) 변호사
▲柳寅用(58) 대한전기협회사무국장
▲柳哲鎬(56) 동방증권사장
▲尹一永(56) 변호사
▲李基萬(62) 대신통상사장
▲李丙基(62) 농림수산부차관
▲張富雄(65) 동방유량㈜전무이사
▲張秀吉(64) 변호사
▲丁瑋鉉(63) 금강개발산업㈜사장
▲崔善來(53) 금성정밀㈜사장
▲崔在護 법원행정처장

◇師範大學

▲金東吉(61) 경인양행회장
▲金鍾祺(55) 성헌화원이사장
▲李長鎬 국사봉중교장
▲李鍾根(39) 중앙교육진흥연구소
▲鄭起成(57) 정일화원
▲趙鏞樂(56) 변호사
▲趙利男(65) 은행지로관리소부장

◇商科大學

▲許秉燮(57) 대하전기㈜사장
▲姜洙憲(62) 대동벽지사장
▲金基中(61) ㈜경방이사
▲金炳德(58) 동양시멘트㈜감사
▲金相燦(56) 고려투자금융사장
▲金允在(58) 원미섬유㈜사장
▲朴明圭(56) 한일은행장
▲朴英珠(63) 이건산업사장
▲朴正龍(56) 동양투자자문㈜사장
▲裵峻虎(57) 유니온가스㈜대표
▲孫忠男(66) 쌍용정유㈜이사
▲宋桂先(57) 외환은행업무추진부장
▲申泰煥 전서울대총장
▲沈相國(63) 남경개발㈜회장
▲安承喆(60) 중소기업은행장
▲吳寓鉉(60) 전동부상호신용금고사장
▲吳寅賢(64) 유한킴벌리㈜부사장
▲李甲植(53) 유양기업㈜사장
▲李康秀(55) 증권감독원상임위원
▲李德鍾(65) 덕우상사사장
▲李英世 풍산금속공업㈜사장
▲李正馥(58) 정풍상사㈜사장
▲林在琇(55) 한신경제연구소사장
▲全昌秀(61) 한일개발㈜부사장
▲鄭鎬湧(56) 동양시멘트㈜전무
▲鄭熙永(65) 선진종합㈜사장
▲朱一(57) 한국기업개발금융사장
▲崔銘杰(60) 대우경제연구소회장
▲崔海殷(56) 대림통상㈜상무
▲韓璉煥(64) 대우증권㈜부사장

◇獸醫科大學

▲朴鍾榮(65) 중앙케미칼㈜
▲千炳得(63) 축협중앙회감사

◇藥學大學

▲金永詮(53) ㈜무방사장
▲朴鍾勳(47) 동국제약㈜회장
▲安養燦(57) 부광약품㈜전무
▲全用東(47) 건풍제약㈜상무

□會員납부에 뜨거운 精誠을…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年會費가 순조롭게 入金되고 있읍니다. 奬學사업을 비롯한 母校돕기에 많은 財源이 소요되고 있는 同窓會에서는 가급적이면 各會員들께서 앞당겨 會費를 내주시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母校 발전과 동창회의 活性化에 도움을 주시는 뜻으로 여기시고 뜨거운 참여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會費내역－

- 一般會費……………… 1만원
- 理事會費……………… 5만원
- 常任理事……………… 10만원

〈회원 3천명 이상〉……………… 20만원

- 監　事……………… 30만원
- 副會長……………… 50만원
- 會　長……………… 백만원

◇醫科大學

▲姜治明(49) 제주의료원장
▲權彝赫(47) 전서울대총장
▲金勝煜(56) 서울대의대산부인과장
▲徐景弼(57) 서울대의대흉부외과장
▲李文鎬(46) 전서울대의대교수
▲李容珏(45) 여의도성모병원외과
▲鄭雨英(50) 정우영외과의원장

◇齒科大學

▲金仁壽(51) 동산치과의원장
▲金讚淑(60) 김찬숙치과의원장
▲李秀種(67) 이수종치과의원장

◇大學院

▲南惠祐(56) 무역협회회장

◇經營大學院

▲金仙大(72) 외환은행창동지점장
▲金泓植(71) ㈜금복주회장
▲馬雄豪(68) 녹십자의료공업회장

◇新聞大學院

▲李根洙(69) 대우투자회사사장
▲李俊佑(75) 조선일보소년조선국장

◇行政大學院

▲尹鎰均(69) 한부개발사장
▲朱丙德 경찰대학장

会員

◇人文大學

▲강인자(86) ▲박자영(85) ▲박홍석(85) ▲윤상익(85) ▲이왕돈(79) ▲이일환(77) ▲정진기 ▲한영균(83)
▲노응근(83) ▲박자영(85) ▲송영정(78) ▲이배홍(82) ▲이운하(84) ▲이장석(81) ▲채형철(79) ▲홍순관(86)

◇社會大學

▲구본학(79) ▲소병운(85) ▲원표희(77) ▲황용하(65)
▲김형기(76) ▲안영도 ▲윤일성(87)

◇自然大學

▲김영식 ▲박광수 ▲이찬서(87) ▲이한형(80)
▲노상석(86) ▲이남식(60) ▲현정준

◇家政大學

▲김윤애(58) ▲민미란 ▲조성교(73)
▲김진아(79) ▲이화령(81)

◇經營大學

▲박태희(86) ▲오상락 ▲이대순 ▲이희준(78)
▲배준호(85) ▲윤석주(82) ▲이호창 ▲정　단(67)

◇工科大學

▲강관원(55) ▲강선휘(57) ▲강영진(55) ▲구장회(65) ▲강춘식(59) ▲안철호(52) ▲권중두 ▲김강화(79) ▲김기환(51) ▲김무언 ▲김병찬(47) ▲김상식 ▲김요환(55) ▲김용정(56) ▲김의박(65) ▲김정건(71)
▲강석규 ▲강성언(69) ▲구본국(69) ▲권기수 ▲심우갑(68) ▲권기정(67) ▲권태식(58) ▲김기호(60) ▲김동길 ▲김병규(50) ▲김상무 ▲김영휘 ▲김용부(58) ▲김을권(61) ▲김인중 ▲김정식
▲김정철 ▲김준용 ▲김호근(54) ▲남화우(58) ▲민태언(60) ▲박남규 ▲박민용 ▲박상건(59) ▲박신규 ▲박희석(84) ▲백동열(80) ▲성기영 ▲송영희(52) ▲신현식 ▲양홍석(47) ▲이후철(67) ▲오계환 ▲옥영석(82) ▲유웅석(72) ▲유항수 ▲윤여경(52) ▲윤종구(82) ▲이광래(77) ▲이근명(67) ▲이범철(67) ▲이윤환(56) ▲이재성(46) ▲이재원(59) ▲이정상 ▲이중탁 ▲임석중(55) ▲임창우(71) ▲장세창(69) ▲장철현(62) ▲정병회(77) ▲정현일 ▲조정제(56) ▲조현기(59) ▲최근선 ▲최석주(55) ▲주종원(57) ▲하영무(73) ▲한기현(85) ▲한상겸(57) ▲한수양(71) ▲한영웅(59) ▲홍순곤(56) ▲황길환 ▲황봉식(65) ▲황해근
▲김종근(58) ▲김형모(58) ▲김회수(62) ▲노승옥(41) ▲박광용(86) ▲박도운 ▲박병완 ▲박상기(62) ▲박우제(56) ▲배영호(70) ▲서동호(63) ▲성백전 ▲신건화(61) ▲안삼덕(66) ▲이동녕 ▲오건희 ▲오세황(65) ▲유승근(57) ▲유재희(85) ▲윤봉순(58) ▲윤정우(59) ▲이경훈 ▲이규생(61) ▲이기설(51) ▲이병수(62) ▲이인범(56) ▲이재운(67) ▲이재홍(69) ▲이종호(65) ▲이지태 ▲임종찬(64) ▲장문현(63) ▲장원갑(67) ▲정규황 ▲정진경(52) ▲조원상 ▲조진호(58) ▲최광엽 ▲최동재(65) ▲최종명(61) ▲최형욱(82) ▲하재명(78) ▲한명수(57) ▲한상철(68) ▲한영용(53) ▲허재순(64) ▲홍재한 ▲황대석 ▲황진권

◇農科大學

▲강대규 ▲곽성진(52) ▲권오준(69) ▲김몽섭(67) ▲김성기(64) ▲김영기(58) ▲김용배(56) ▲김장호(70) ▲김현수(62) ▲박동일 ▲박정덕 ▲박진국(76) ▲박창용(59) ▲성배영(66) ▲송유철(70)
▲고문영(52) ▲구득수(75) ▲김광식(81) ▲김병규(68) ▲김연수(62) ▲김영철(60) ▲김인규 ▲김주달(68) ▲노필규(65) ▲박정남(64) ▲박진구 ▲박창규(78) ▲서정락(60) ▲손영희(81) ▲송춘종(59)

▲심상영(54) ▲최민호 ▲오익환(39) ▲유해관(55) ▲이상범(82) ▲이수욱(64) ▲이창구 ▲정승래 ▲정주영(74) ▲조진태(58) ▲지광현(58)
▲정지웅 ▲심언목(61) ▲유학선(62) ▲이보식(63) ▲이석건 ▲이종화(40) ▲이태범(78) ▲정용복(55) ▲조규열 ▲조한보(52) ▲한상옥(61)

◇文理科大學

▲강경훈(65) ▲권규식(57) ▲김명섭(57) ▲김석만 ▲김영철(61) ▲김운용(67) ▲김인규(73) ▲김종윤(48) ▲김홍정 ▲민경덕(63) ▲박상우(73) ▲박용철(65) ▲박일규(63) ▲배인하(66) ▲손영호(59) ▲김영철 ▲김중술(59) ▲송병회(55) ▲송종섭(62) ▲신우식(57) ▲안용수(57) ▲오세한(70) ▲우영의(63) ▲유제기(86) ▲유호봉 ▲이규원(51) ▲이대관(62) ▲이석구 ▲이승희(75) ▲이인기(66) ▲이주용(57) ▲인오룡(74) ▲임창혁 ▲장덕주(59) ▲정연권(54) ▲정일화 ▲정해수 ▲조철제 ▲지건길(66) ▲최서영(58) ▲최순확(57) ▲이가화(63) ▲최호중(56) ▲한영희 ▲한철순(62) ▲홍성훈(61) ▲황경자(64) ▲황연익(61) ▲황용수(60)
▲강신규(56) ▲김동준 ▲김병택(56) ▲김성기 ▲김영철(67) ▲김은호 ▲김인수(63) ▲김주현 ▲남상진(49) ▲박기성(63) ▲박용호(54) ▲박인규(60) ▲방 곤 ▲서정옥(64) ▲송 민(63) ▲김성기(65) ▲송규정 ▲송인찬 ▲신영철 ▲신유식(59) ▲엄규진 ▲우동효(65) ▲원홍규 ▲유조복(77) ▲이강조 ▲이낙훈 ▲이돈형(63) ▲이수현(73) ▲이원구(60) ▲이인영 ▲이효선 ▲임득호(71) ▲임형삼 ▲정봉욱(64) ▲정오근(66) ▲정지영 ▲정효섭(65) ▲조철화(55) ▲채관수 ▲최성열(48) ▲최영효(58) ▲최진호(71) ▲최홍순(60) ▲한일상(68) ▲홍경화(58) ▲홍순호(66) ▲황보순(61) ▲황영철 ▲황운철(57)

◇美術大學

▲강대운 ▲안종문(65) ▲유형규 ▲이귀향(56) ▲조상용 ▲현숙자
▲민철홍(58) ▲유병수(63) ▲윤형자(65) ▲전성우 ▲최정용(67)

◇法科大學

▲강민구(81) ▲권혁구(61) ▲김경중(82) ▲김구철(83) ▲김녹규(69) ▲김두환(57) ▲김영경 ▲김원주(57) ▲김창회(62) ▲민좌기(63) ▲박대운(65) ▲박종덕(61) ▲방순원 ▲설동훈 ▲신 평(78) ▲신영무 ▲신정철 ▲신희택 ▲엄기염 ▲우정권(66) ▲유문억(58) ▲유종해(54) ▲유호민 ▲윤정경(59) ▲이강훈 ▲이명구(60) ▲이상배(62) ▲이영범 ▲이재웅 ▲이태섭(85) ▲이현돈(72) ▲이홍규 ▲임인택 ▲장준봉(60) ▲전병연(52) ▲정병건 ▲정진홍(79) ▲조봉남(57) ▲조웅호(58) ▲주양일 ▲차상필 ▲최병수(60) ▲한원도 ▲허택원(57) ▲황선무(64) ▲황운영 ▲윤명중(59) ▲윤재태 ▲이세중 ▲이재창 ▲전국전 ▲정병섭 ▲정장현 ▲조 석(55) ▲조지연(64) ▲최기혁 ▲최상태(64) ▲최혁모
▲구남수(87) ▲김강수(35) ▲김광전(62) ▲김남진(63) ▲김대희(69) ▲김상희 ▲김영필(57) ▲김준상 ▲문원주 ▲박군배(65) ▲박상열 ▲박춘석(40) ▲배석필(62) ▲손일근(54) ▲신교준(62) ▲신용주(65) ▲신중대(66) ▲심훈종(60) ▲염정훈(49) ▲유광현(77) ▲유영해(46) ▲유지한(65) ▲윤상목(56) ▲이 원(68) ▲이덕구 ▲이상도(69) ▲이상범 ▲이용현(50) ▲이창범(57) ▲이황령(40) ▲이호연(64) ▲임규운(53) ▲임종두(83) ▲전덕원(58) ▲전선기 ▲정주영 ▲정희준(63) ▲조성기 ▲조택근(58) ▲지성우(70) ▲최규영 ▲최수만(66) ▲한진상(67) ▲홍명선(55) ▲황영욱(63) ▲오강근(68) ▲윤영철 ▲이세복(65) ▲이수길(66) ▲이종상(58) ▲정규일(56) ▲정원익(66) ▲정진택(84) ▲조관행(63) ▲차운석(64) ▲최달곤(63) ▲최선근

◇師範大學

▲강병훈 ▲공구영(58) ▲권혁미(81) ▲김규삼(56) ▲김순매(40) ▲김옥연(62) ▲김원태(32) ▲김은전(57) ▲김종환(57) ▲김혜경(74) ▲노관우 ▲마귀남 ▲박용관(53) ▲박종서(61) ▲박진영(59) ▲백윤택(63) ▲서인경(56) ▲신규숙(39) ▲신재길(65) ▲안정균(65) ▲양국성(27) ▲양태홍(64) ▲오정환(66) ▲오충섭 ▲유중재(58) ▲윤용웅(64) ▲이규희 ▲이명숙 ▲이상재 ▲이수찬(56) ▲이연식(60) ▲이일규 ▲이정남(66) ▲임인순(62) ▲정경모(48) ▲정문필(60) ▲정원모 ▲조영일(66) ▲진원우(72) ▲최문상(57) ▲최승환 ▲최태상(57) ▲한창우(48) ▲허 영(54) ▲구관서(77) ▲김귀풍(63) ▲김묵환(61) ▲박영우(61) ▲송정열(35) ▲이동범(47) ▲이봉현(60) ▲이화찬(54) ▲이홍자(74) ▲장기옥(61) ▲조길현 ▲조원형(59) ▲진순례(37) ▲최다미
▲고병철 ▲권오현(75) ▲김권수(56) ▲김성윤 ▲김시형(58) ▲김용태 ▲김윤기(53) ▲김인기(84) ▲김한정(55) ▲김홍식 ▲노영식(69) ▲마희창(79) ▲박운섭 ▲박중리(76) ▲박찬욱(73) ▲변탁연 ▲송만호 ▲신술균 ▲신혜순(51) ▲안종환(59) ▲양동석(69) ▲엄기진(57) ▲오진경(38) ▲위준혁 ▲윤성수 ▲이관형 ▲이돈수(59) ▲이문구(61) ▲이석병(57) ▲이신구(63) ▲이우식(63) ▲이재철(81) ▲임영석(49) ▲전석우(80) ▲정계순(59) ▲정우상(57) ▲조광준(57) ▲조용수 ▲진은숙(65) ▲최병선(58) ▲최주영(42) ▲한병길 ▲한홍승(60) ▲황의상(57) ▲권광옥(58) ▲김남욱(60) ▲김진형(79) ▲박정남(57) ▲안준천 ▲이병구(43) ▲이완식(61) ▲이현수 ▲임공희(68) ▲조 현(55) ▲조용복(60) ▲주연우(53) ▲최길성(63) ▲최종숙(69)

◇商科大學

▲강신종(66) ▲공광우(55) ▲공정택(57) ▲권태윤(51) ▲김경현 ▲김만경(57) ▲김병기(58) ▲김상규(65) ▲김완기 ▲김재호(56) ▲김종국(59) ▲김진호(58) ▲김현주(63) ▲김형철(73) ▲라진원(71) ▲문태철(62) ▲민경재(59) ▲박경하(58) ▲박영복(63) ▲박오수(77) ▲박원준(67) ▲신대균 ▲박종민(72) ▲박천두 ▲배기수(65) ▲백기환(57) ▲변원옥 ▲서동범(55) ▲송무희(65) ▲신광근(69) ▲신찬수 ▲심창순(64) ▲안명길(65) ▲엄한철 ▲오덕균(57) ▲우선부(65) ▲원우식(56) ▲유근춘(85) ▲윤시형(51) ▲이대곤(62) ▲이원승(64) ▲이재윤(58) ▲이철주(65) ▲임중환(64) ▲장종의(64) ▲정도구 ▲정홍술(71) ▲조동일(64) ▲주덕화 ▲최성식 ▲최진택(65) ▲하진오(64) ▲한기창(63) ▲허영정(52) ▲강동구(57) ▲구선회(60) ▲구제성(64) ▲김동수(58) ▲김영작(67) ▲김진호(51) ▲문수만(64) ▲송진호(56) ▲안태호(51) ▲오영욱(51) ▲유창희(71) ▲이경원(64) ▲이기만(58) ▲이용우(65) ▲이종오(56) ▲이효중(65) ▲임조홍(64) ▲장철훈(63) ▲전완식(66) ▲정운정(57) ▲정상진 ▲정육수(51) ▲정홍택(51) ▲조남직(63) ▲주광준(60) ▲최경남(56)
▲계영희(59) ▲공석남(57) ▲김건수 ▲전영효(61) ▲김길환(65) ▲김부홍(74) ▲김상규(51) ▲김영곤(51) ▲김유수(57) ▲김제진(61) ▲김중수(56) ▲김창수(70) ▲김형영(60) ▲노경진(59) ▲류태환(54) ▲문학모 ▲민병훈(60) ▲박세만(49) ▲박영조(65) ▲박용대 ▲강수현(62) ▲김상찬(56) ▲박중대(57) ▲배지원(57) ▲변양호(77) ▲서도성(67) ▲설광림(67) ▲송정위(66) ▲신인식(63) ▲신현석 ▲심형섭(63) ▲양성진(57) ▲오기영 ▲오영옥(57) ▲원용훈(57) ▲유관필 ▲유봉노(52) ▲윤정근(58) ▲이만수(62) ▲이일훈 ▲이종복(57) ▲이춘무 ▲임창무(57) ▲전영완(56) ▲정문모(65) ▲제정오(63) ▲조원기(40) ▲최규성 ▲최용호(54) ▲최호순(58) ▲한중수(61) ▲허남린 ▲황재천(65) ▲강영구(63) ▲구영치(66) ▲김도집(57) ▲김병기 ▲김인기(56) ▲노경섭(67) ▲박영노(57) ▲안재천(62) ▲안혜진(57) ▲유대진 ▲육심강 ▲이광우 ▲이병국(56) ▲이은방(61) ▲이호철(61) ▲이희순(61) ▲장기팔(62) ▲전수영(64) ▲최덕근(69) ▲허종남(58) ▲정종식(62) ▲정희경(65) ▲조성진(61) ▲채병윤 ▲최구관(57) ▲한석윤(58)

◇獸醫科大學

▲김기홍(56) ▲김선일(70) ▲박영석(62) ▲백종범 ▲변영근(56) ▲이문성(64) ▲조희태(56) ▲최윤석(56) ▲박 영 ▲이강훈(64) ▲이규본 ▲이수창(67) ▲전원표(63)
▲김상열(53) ▲김환경(53) ▲박종민(63) ▲백충기(77) ▲윤경진(85) ▲이양성(62) ▲최광수(64) ▲한인식 ▲양태전(54) ▲이규본(65) ▲이덕주 ▲이재진 ▲조가형(53)

◇藥學大學

▲강혜숙 ▲김광일(49) ▲김덕환(50) ▲김영호(58) ▲김장호(69) ▲김창수(78) ▲박동순(64) ▲박영길(65) ▲서재균 ▲신광길(66) ▲엄태윤(63) ▲오동환 ▲이석만(62) ▲이태희 ▲임무홍(78) ▲조남각(44) ▲한영희(57) ▲고형훈(63) ▲노태선(48) ▲배윤도(41) ▲오성환(64) ▲이강추(58) ▲이상은 ▲임국선(50) ▲조내규 ▲조윤환(53)
▲김경숙(59) ▲김규호(72) ▲김상열 ▲김이수(63) ▲김재기(57) ▲노환성(61) ▲박문기(51) ▲박유정(50) ▲송인범(70) ▲신성묵 ▲오경애(50) ▲오병민(55) ▲이승한(71) ▲이현태 ▲정숙기(58) ▲최연화(55) ▲고재근(57) ▲남충우(66) ▲방영자(59) ▲신현우 ▲윤승노(56) ▲이규송(57) ▲이창우(40) ▲장수창 ▲조동화(54)

◇音樂大學

▲김형규(64) ▲백낙호 ▲오건식(66) ▲이동남(70) ▲홍성옥(62) ▲박수영 ▲정규주(77)
▲나광자 ▲송영옥(84) ▲유덕희 ▲이현자 ▲황철익 ▲윤미용(69) ▲최춘근(53)

◇醫科大學

▲강영구 ▲김기용(60) ▲김순배(84) ▲김연기(64) ▲김용규 ▲김윤범 ▲김중호(66) ▲김희중(80) ▲남궁은(50) ▲박성호(79) ▲박수성(53) ▲박정진(47) ▲박찬무(47) ▲이재홍(61) ▲장윤석 ▲허봉열(67) ▲강태웅(57) ▲고응린(57) ▲김곤식(59) ▲김성수(73) ▲김종훈 ▲김충은 ▲김한진(60) ▲노동두 ▲문종소(35) ▲박문선(60) ▲배성환(77) ▲석사화 ▲심상운(37) ▲엄영섭(48) ▲윤준식 ▲이상문 ▲이성우(59) ▲이종훈(55) ▲이지영(58) ▲이진호(53) ▲주홍재(61) ▲임창제(45) ▲정동철(60) ▲조장원(57) ▲하재동(57) ▲한영섭(59) ▲한홍모(51) ▲박혁석(55) ▲서재화 ▲송선보(47) ▲신봉하 ▲오병희(77) ▲유근영(78) ▲이계평 ▲이상신(52) ▲이순용(63) ▲이정우(57) ▲이종일(54) ▲이호섭 ▲장영덕 ▲전병훈 ▲정태산(59) ▲조병규(70) ▲조성옥
▲고영석 ▲김선아(85) ▲김승현(34) ▲김영준(52) ▲김우곤(61) ▲김준황 ▲김형주 ▲남궁견(73) ▲박병재 ▲박성희(59) ▲박용화(61) ▲박조열(58) ▲이부영(59) ▲이홍규 ▲정문상(71) ▲강길전 ▲강형운(49) ▲기정일(65) ▲김병수(61) ▲김영식 ▲김진규 ▲김태윤(52) ▲김현우(60) ▲문의주 ▲박대관(51) ▲박정국(56) ▲서병준(54) ▲신현덕(77) ▲양영식(72) ▲오승근(71) ▲이맹신(72) ▲이성선(50) ▲이정권(80) ▲이종화(61) ▲이진우(58) ▲이철구(62) ▲임수길 ▲정구현(48) ▲정영한(55) ▲채현덕(57) ▲한만동 ▲한영자 ▲홍영식(67) ▲백성현(62) ▲송계용(73) ▲신 실(68) ▲심완섭(70) ▲유경상(70) ▲유영삼(86) ▲이덕수 ▲이상일(47) ▲이정상 ▲이종국(74) ▲이지호(83) ▲임남재(63) ▲장화진(70) ▲정용헌(62) ▲조경환(58) ▲조병득(57) ▲조용준(56)

◇齒科大學

▲김기국 ▲김상현(62) ▲이점식(55) ▲김의식(44) ▲박용환(73) ▲박정봉(66) ▲배유홍(56) ▲윤명국(65) ▲이건수(71) ▲이병규(61) ▲이청형 ▲이홍열(72) ▲조근태(61) ▲조창홍(50) ▲허준구(72)
▲김진태(58) ▲김은수(62) ▲김응태(42) ▲김채종(74) ▲박원배 ▲방달호(63) ▲백순지(69) ▲윤종구(58) ▲이광표(58) ▲이수임(78) ▲이해철 ▲장병천(74) ▲조달문(68) ▲한형진(58)

◇看護學科

▲유숙자(63)
▲이영자(66)

◇大學院

▲이영구
▲장정순(65)

◇經營大學院

▲송창영(83)
▲정홍진(68)

◇新聞大學院

▲곽찬호(71)
▲인태오

◇行政大學院

▲강경보 ▲김익영(66) ▲장종의
▲김길조(62) ▲김진억(66) ▲최천근

◇環境大學院

▲전희상(80)

◇未詳

▲윤인호 ▲이춘헌(57) ▲최혜은
▲이승규 ▲차용석

會員名簿 발간 작업중

동문소재를 알려주십시오

同窓會에서는 創立20주년 기념사업으로 會員名簿를 발간합니다. 78년 이후 11년만에 발간되는 이 명부가 보다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동문본인은 물론 同期, 先後輩, 서클, 家族및 親知, 職場동료, 그리고 海外居住동문들의 소재도 알고 계신대로 姓名·出身大學(院)·卒業年度·職場및 職位(電話)·自宅住所(電話)순으로 기입,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낼곳 : 〒, 121 - 040. 서울市麻浦區 桃花洞 18-2 서울大學校 同窓會 名簿編纂室 (電話702-2233~5 717~8536~7)

同門作家 短篇選

종이새의 비행

—— 李淸俊 〈64年 文理大卒〉

말하자면 나는 언제부터가 그처럼 종이비행기가 날아내리는 시각과 현장을 내 눈으로 직접 한번 보고싶은 충동에 쫓기게 된 것이었다. 저것들은 과연 어디서 언제쯤 날아내려 앉고 있는가. 몇층쯤의 높이에서 어떤 사람의 취미와 정성이 그토록 대단스러운가. 나는 밤마다 그 종이접이들이 어둠속으로 날아내리는 현장을 보기 위해 혼자 거실로 잠자리를 빠져나와 창문 앞을 멍청히 서성거리곤 하였다. 하지만 한번도 그 종이비행기가 어둠속을 날아내리는 현장은 목격되지 않았다. 하루는 아예 집까지 나가서 잔디밭 주위의 벤치에 눌러 앉아 18층까지의 창문을 지켰으나 그것도 싱거운 헛일이 되고 말았다. 어둠속에 밖으로 열려있는 창문을 찾아내기도 어려웠거니와 때마침 어디선지 종이접이가 떨어져 내린다 하여도 그것이 몇층의 창문에선지를 가려내기도 쉽지 않을 일이었다. 그 어둠속 탐색에서 얻어낸 소득이 있다면 비행기를 접은 종이들이 (나는 알 수 없는 저어감 때문에 이때까진 거의 엄두를 못내다가 이날밤 처음으로 그걸 하나 집어다 보았는데) 이때까지의 막연한 예상과는 달리, 어린애들의 낙서장 조각이나 신문지나 부랑이가 아닌 옛날 유행가집 책장이라는 것 정도였다. 하지만 내가 그것으로 더이상 무엇을 알아낼 수가 있었을 것인가. 그건 내게 여전히 은밀스런 수수께끼의 비밀기호 한가지로 오히려 궁금증만 더해왔을 뿐이었다. 그리고 또 아침엔 어느새지 그것들이 누군가의 괴로운 불면의 선물처럼 잔디위를 촉촉히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럴수록 심사가 더 어지러울 수밖에 없었다. 일테면 그것들은 내게까지 엉뚱한 불면의 구실이 되어갈 뿐 아니라, 점괘가 그리 신통치 못한 무당점장이처럼 엇나간 상상들을 되풀이하게 하였다. 혹은 그것은 그 보이지 않는 종이접이의 주인공에 대한 나의 지향없는 소망을 그만큼 간절하고 깊게 해 간 것이기도 하였다. 특히 그 착륙이 하나도 없는 날이나 한꺼번에 갑자기 늘어있는 날 아침엔 그의 꿈과 소망이 어떤 손상을 입게 되지 않았기를, 손상을 입기전에 눈부신 비상이 성취되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빌었는지 모른다. 하고보면 그것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종이비행기의 주인공에 대한 나의 꺼림칙한 불안기의 다른 표현인 셈이었다. 한마디로 나는 그 누군가의 종이접이 장난질로 하여 (물론 그것이 이유의 전부는 될수가 없겠지만) 자신까지 마침내 잠을 잃은 불면의 환자꼴이 되고만 것이다. 하지만 그도 다 예정된 진실에의 길이었는지 모른다. 그 불면증이 드디어는 내게 그 종이비행기의 주인공을 보게해준 것이었다.

추석달이 거의 반쪽으로 이울어든 지난 시월 초순의 어느날 새벽이었다. 나는 그간의 불면의 버릇에다 달빛까지 유난히 차갑고 맑아서 밤잠을 좀처럼 이룰수가 없었다. 나는 아예 잠자리를 차고 거실로 나와 새벽녘 가까이까지 밤을 지키고 앉아 있었다. 그 차가운 새벽녘 달빛에 공연히 심사가 아득해 있던 참이었다. 어느 순간 얼핏 창밖을 스쳐내리는 물체의 그림자같은 것이 곁눈질로 느껴졌다. 그러자 나는 불현듯 망연스런 의식을 되찾으며 자신도 모르게 창쪽으로 다가갔다. 무슨 밤새의 야행처럼 창밖을 스쳐내린 검은 그림자는 의심할바 없는 종이비행기일시 분명했다. 아닌게 아니라 창문밖 잔디밭엔 방금 떨어져내린 종이접이 하나가 다소곳이 날개를 접고 앉아 있었다. 나는 드디어 오랜 기다림끝에 종이비행기가 내려앉는 현장을 목격한 것이었다.

물론 이날밤 그 종이접이의 날음과 내려앉음을 본 것은 그 한번만의 일이 아니었다. 거기서 잠시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하나의 종이접이가 달빛속으로 내려앉았다. 그리고는 다시 또 세번째, 네번째…… 뿐더러 그 종이접이의 수가 더해갈수록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었다. 그 숫자가 여섯번째에 이르렀을 때는 마치 그 날렵한 내려앉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크고 무거운 물체의 떨어짐에서처럼 둔탁한 추락음마저 들은 것 같았다. 나의 가슴속에서도 그 추락음의 깊은 진동이 일고 있었다.

나는 드디어 더 참지를 못하고 그길로 집을 나와 앞뜰쪽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비로소 그간의 나의 엉뚱한 오해를 깨달았다.

도대체 나는 어째서 그동안 어린아이나 감상기의 아가씨들만을 상상하고 있었던 것일까. 어찌하여 삶의 시작에 선 사람들의 꿈과 소망밖엔 생각할 수가 없었을까…… 나의 오해란 다름이 아니었다. 내가 집을 돌아 앞쪽 잔디밭에 이르러서도 종이비행기는 계속 날아서 떨어지고 있었다. 아파트건물의 위층을 쳐다보니 과연 거가 한 창문이 열려있는 게 보였다. 그리고 거기 아직도 하얀 잠옷의 그림자 하나가 창밖으로 소리없이 종이접이들을 드문드문 날려보내고 있었다. 그것들이 날려 멀리까지 날지 못하고 바로 우리 거실앞 잔디위로 모여 떨어지는 것은 알고 보니 그 창문이 5、6층 정도의 높이에 불과한 때문이었다. 그가 그 창문가에 조용히 붙어서서 이따금 그 종이접이들을 날려보내고 있는 모습은 분명 어린이나 여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맑고 차가운 달빛속에 그 자신이 한마리 종이새가 되어 금방이라도 하얗게 허공을 날아내릴 것같은 창문가의 人影은, 그리하여 내게 어떤 조용한 비탄과 소망의 소리가 번져오는 듯하던 그 그림자의 주인공은 분명히 이 아파트에선 흔치 않게 나이를 먹은 노인의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날밤 그것이 정말로 나이를 많이 먹은 노인인지 어쩐지, 노인이라면 그것이 할아버지인지 할머닌지, 그런데까지는 분명히 확인할 길이 없었다.

사실을 말하면 그보다 나는 아직도 설마하는 마음에 그 조용하고 하얀 모습 뒤에서 또 하나의 사람의 그림자—어쩌면 거기 함께 밤을 지켜새우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의 청상딸이나 어린 손주의 모습을 찾는데에 더 신경이 쓰이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이날밤 끝내 그밖에 다른 기미는 볼수가 없었고, 달빛속에 드러난 그 하얀 그림자도 정체가 제대로 확인이 안된채 그대로 창문이 닫기고 만 것이었다.

人影의 정체가 제대로 밝혀진 것은 그러니까 그로부터 이틀이 더 지난 뒤, 그리고 그 두밤사이 어느 때보다 그 종이새들의 낙하가 심하여 나를 더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세밤째가 지나고 난 다음날 아침이었다. 아마도 그는 그 밤하늘을 날기 위해 그동안 그토록 몸을 말려온 것이었을까. 간밤엔 별다른 기미나 소리를 느끼지도 못했는데, 이날 아침 창문밖 잔디밭위에는 그 낭자한 종이접이들의 형체속에 그가 조용히 내려앉아 누워 있었던 것이었다. 여든살가까이나 나이를 먹으면서 하얗게 야위어온 한 정갈한 늙은이가 마치 그 자신 한마리 종이새로 간밤의 하늘을 날아내려온 듯이.

예비同門 4,406명 맞아

母校소식

工大 컴퓨터 增設

學生들 자유롭게 利用가능

공대 전산실에서는 학부생및 대학원생의 교육연구지원을 위하여 지난 3월4일 PC실습실(36동110호)에 PC/X T 43대, 터미날실(33동123호)에 PC/AT 20대를 증설했다.

이 기기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월2일 入學式 거행

지난 3월2일 체육관에서의 입학식을 시발로 관악캠퍼스는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오랜만에다시 만난 재학생들은 캠퍼스 곳곳에 모여앉아 정담을 나누고 새학기의 계획을 세우는등 관악캠퍼스는 시종 활기가 넘쳤다.

89학년도 입학식에서 趙完圭총장은 식사를 통해 『대학생활의 목적에 대한 투철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한편, 사제간의 신뢰를 되찾는데 힘쓰고 미래역사의 주인으로 뻗어나갈 각오를 굳게 다져줄 것』을 신입생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대해 4천4백6명의 신입생들은 서울대학교의 명예에 어긋나지 않는 성실한 자세로 대학생활을 영위할 것을 선서, 다짐했다.

伴導体장비 MRC社서 기증

반도체공동연구소(소장 : 李鍾德·전자공학과교수)는 미국 M.R.C社 (Material Research Cooperation)로 부터 약 1억4천만원 상당의 Sputtering System을 기증받았다. 기증식은 지난 1월19일(木) 오전 10시30분경 연구소 2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번에 기증받은 장비는 진공상에서 반도체기판(Wafer)에 금속·산화막 물질을 물리적으로 정착시켜주는 것으로 학생실험용 및 연구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이전에도 삼성반도체등 국내기업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장비를 기증받았으나 외국으로부터의 기증은 이번이 처음이다.

音大管絃樂團 東南亞 연주여행

음대 관현악단은 지난 2월18일부터 25일까지 아시아오페라단의 초청에 의해 동남아 연주여행을 가졌다.

대만·홍콩·싱가포르에서 모두 4차례 공연한 이번 연주여행은 모교관현악단으로는 최초의 대규모 해외공연이라는 점과 민간주도의 음악교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林憲政(작곡가) 교수가 지휘했고 白樂晧(기악과) 음대학장이 단장을 맡았다.

教授協議會 회장에 田溶元교수를 선출

모교 교수협의회는 지난 3월8일 문화관 소강당에서 총회원 1천3백47명중 5백72명(위임 4백76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사의를 표명한 邊衡尹회장의 후임으로 田溶元교수(工大 자원공학과)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 예산안 심의 임원개선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獸醫大 학장에 權宗國교수

지난 2월말로 임기만료된 獸醫大 林昌亨학장의 후임으로 權宗國교수(수의학과)가 새로 임명되었다.

신임 權학장은 56년 모교 수의대를 졸업하고 호주 시드니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후 64년부터 모교에서 강의를 맡아왔으며 그동안 수의대 교학담당학장보및 학과장등의 보직을 역임한바 있다.

6·24관련 無期停學 모두 해제

除名者도 學則고쳐 復學 허용 방침

모교는 지난해 6월24일 총장실 점거 농성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학생들중 이은우(경제85)·김용호(사회85)·안우상(신문85)군등 3명의 무기정학이 지난 3월1일 풀린데 이어 13일에는 임정근군(경영85)·17일에는 최형석(철학85)·박영암(동양사84)·이정현(국문85)군과 최일선(교육85)·김귀철(역사교육85)군등의 무기정학이 각각 해제됐다.

이에따라 박영암군을 제외한 무기정학자들은 수업주수 4분의1선인 29일까지 등록을 하면 정상적인 학생신분을 되찾을 수 있다.

박영암군은 지난해 2학기 등록을 하지 않아 제적된 상태이다.

한편 제명됐던 11명중 법원에 제명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한 2명외에 나머지 9명에 대해서도 학교 자체적으로 징계를 풀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9명 대부분이 새학칙의 소급적용을 받아 조만간 복학이 허용될 전망이다.

모교는 이를 위해 23일 오후 趙完圭총장 주재로 학장회의를 갖고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학칙 제44조 2항을 개정하고, 제명자에 대한 再審 및 재입학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곧 마련키로 했다.

모교의 이같은 결정은 학생징계문제가 계속 심각한 학내문제가 되고있는데다 최근엔 법정소송으로까지 번지자, 단과대 교수들 사이에 징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풀수 있도록 경직된 학칙을 고치자는 의견들이 강하게 제기돼온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방향의 학칙개정에 대해 일부 단과대 교수들은 반대의견을 피력해왔고, 학칙 개정후에도 징계를 번복할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모교는 지난 22일 서울고법이 제명취소 판결을 내린 임태혁(외교86)·조보형(대기과학86)군등 2명에 대해서는 이번학기 추가등록기간중에 등록을 허용키로 했으나 「교육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권위있는 판례를 남겨야 한다」는 취지에서 승소에 관계없이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總長選任方案 공청회

제시된 3案 전체敎授에 의견물어

고려대·세종대등 일부 대학이 총장선출방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있는 현재 모교도 「총장선임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28일 오후2시 문화관소강당에서 교수·교직원등 1백여명이 모인가운데 열렸다.

제안설명에서 具永祿교수(정치학과)는 △총장후보제청위원회에서 최종후보 2인 이상을 선정·제청하는 案, △총장후보선정위원회가 선정하여 제시하는 2인이상의 후보에 대해 교수전원이 가부 신임투표를 하여 제청하는 案, △총장후보지명위원회에서 선정·제시하는 후보자 5~10인을 대상으로 하여 전교수가 직접투표로써 2인이상의 최종후보자를 선출·제청하는 案등 선임방안 3가지를 제시했는데, 세방안 모두 현재 타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과 직원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다.

이 공청회를 주관했던 「자율적발전방안연구위원회」(위원장 : 金榮國부총장)에서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질문서를 작성하여 전체교수에게 배포, 의견을 취합한 후 학장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電力工學硏 호암생활관起工

호암생활관과 전국대학이 공동 이용하는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의 기공식이 지난 3월4일과 7일에 각각 있었다.

호암생활관은 4일 오전 11시40분 신축부지(교수아파트 건너편)에서 趙完圭모교총장, 이건희삼성그룹회장, 李聖秀본회상임부회장을 비롯하여 공사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총 4천여평의 대지위에 약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2층, 지상5층으로 신축되는 호암생활관은 오는 11월에 완공된다.

三星그룹에서 공사비전액을 부담하여 건립하는 이 호암생활관은 대학원생, 모교 교수및 교환교수를 위한 주거시설과 회의실,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쇼핑센터로 이용될 계획이다.

한편 기초공학공동연구소는 7일 오전11시 38棟뒤 공터에서 趙完圭총장, 李鳳瑞동력자원부장관, 安秉華한전사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상5층, 연건평 1천50여평에 총 공사비 22억원이 소요되는 이 연구소는 48억원이 투입되어 연구실험기자재가 완비되는 90년 12월에 실질적인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출연금을 한전측이 부담하는 이 연구소가 완성되면 기존의 한전연구소의 개발연구, 한전기술연구원의 응용연구와 함께 기초연구를 수행하며, 고가의 연구기자재 공동구입과 공동사용이 이루어져 대학원교육의 질적향상은 물론, 기초연구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초대 소장에는 이번에 공대 전기공학과를 정년퇴임한 梁興錫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소에는 초전도 고전압 및 플라즈마와 레이저 등을 연구하는 5개의 연구실이 설치되어 있고 전국 대학에서 모두 41명이 연구위원으로 위촉됐다.

教授人事

△사회과학대학 교수 朴宇熙=경제연구소장 겸무를 명함 △자연과학대학 부교수 高健=전자계산소 부소장 겸무를 명함 △공과대학 교수 洪性穆=건축학과장 겸무를 명함 △공과대학 부교수 李鎬仁=공업화학과장 겸무를 명함 △공과대학 부교수 曺裕根=컴퓨터공학과장겸무를 명함 △농과대학교수 金文基=농공학과장겸 농업토목전공주임 겸무를 명함 △농과대학 교수 禹建錫=농생물학과장 겸무를 명함 △농과대학 교수 林雄圭=농생물학과 식물병리전공주임 겸무를 명함.